

제418회 국회  
(정기회)

##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10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긴급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1. 긴급 현안질의 ..... 1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진행 방식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배석자가 답변하시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소속과 직함을 밝히신 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긴급 현안질의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등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진실들이 낱알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그 중심에는 우리 국방위원회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님들 모두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안질의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계엄이라는 후진적 행태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관계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묻는 역사적 질문에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군 지휘부와 사건 관계자 어느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재 우리 군의 사기가 많이 꺾여 있고 이는 우리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휘부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과 관계가 없거나 무고한 참군인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명령만을 수명한 채 출동했던 군인들은 어디로 왜 출동했는지도 모르고 나섰다가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날카로운 현안질의를 해 주시되 발언하실 때는 아무 죄 없는 군인들 전체 사기를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하면 그 혼란과 위험을 국민이 감수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데 동조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 국방위원회가 국가와 안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껏 그래 왔듯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국방위가 국민들께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오신 분들에 대한 증인 선서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미리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 봤지만 관례적으로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도 스스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하면 증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선서를 하고 이분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부 군인들 전체를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 사기를 고려하고 또 지휘관으로서도 그런 부하를 사랑하는 점은 누구보다 더 각별하다고 생각됩니

다. 그렇다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어떤 점이 국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야 된다 하는 것은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알겠습니다.

청문회나 국정감사는 의무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리는 이 회의는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아니어서 여야 간사님들 간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강대식 간사님께서 의총에 참석을 하고 곧 오실 텐데 두 간사님께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양당 간사님 간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아니요, 이걸 양해할 사안이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아니, 추미애 위원님……

○추미애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증인들도 사실은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박범계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성일종 이렇게……

○추미애 위원 증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거짓 증언에 대해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하면서 이분들의 말이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양당 간사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게 행정적으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들 협의를 좀 하시면 제가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지금 추미애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아무튼 오늘 무제한 이러한 현안질의가 가능하게끔 허락하신 성일종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지금 일단 참모총장부터 그렇고요 어쨌든 피의자가 될지도 모를, 아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직 군인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추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 되는 경우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 방어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방위의 회의장이 실제 진실 규명에 쓰여지는 회의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를 변호하고 거짓으로 이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하부 실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왜곡된 진술, 허위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서한 증인이야만이 제대로 진상 규명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여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이렇게 좀 하시지요.

국회가 선례가 있는 일인지 좀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또 법적으로는 국회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우리 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당 간사님이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 과정에서 국회 선례나 또 법적인 측면이 보장이 되면 양당 간사님이 합의하는

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당 간사님 협의를 좀 한번 하하지요.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 자체가 지금 선례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를 범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사태에 우리가 과감하게 국민이 가급적 신속하게 진실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선례가 없지 않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나온 분을 증인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추미애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양당 간사와 또 행정실에서 수석님, 그것 좀 협의해 주시고요.

○추미애 위원 지금 법사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렇게 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추미애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다른 상임위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검토하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하실 게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도 얼마든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당 간의 법적인 측면을 검토를 한 후에 추가질의할 때 또 물어야 될 부분에 의심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묻도록 제가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이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에 대한 침탈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탈도 매우 중요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리에 국방조사본부장, 나와 있어요?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예.

○박선원 위원 조사본부장, 선관위 난입 소령 대령 사진이에요. 이거 받아 가세요. 오후에 수사하고 이 사람들 출석시켜 주세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이 사람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반드시 출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국방조사본부장한테 줄 테니까 바로 수사 조치하고 이 자리에 출석시켜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안 됩니까?

○위원장 성일종 안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안규백 위원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방첩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자료 은폐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방첩사 계선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직무정지를 좀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관은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차관은 국무회의가 있어서 약 1시간 좀 늦게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제가 그건 양해를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이따 차관님 오시면 우리 위원장께서 방첩사 주요 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알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유용원입니다.

우선 어제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번에 여당 위원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렸지만 군인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추가적으로 간단히 당부의 말씀 올리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현재 군 내부 분위기는 매우 뒤숭숭하고 병사들뿐 아니라 부사관, 위관·영관장교 할 것 없이 많은 장병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계엄령 사태 이후에 합참과 각 군 본부의 주요 직위자들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야간과 주말 대기를 하고 있고 작전부대의 전 간부도 세 군대의 통신 축선상 대기하는 등 높은 강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휘관들께서 잘 지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혹시라도 안보 상황에 빈틈이 발생하거나 부정적 이슈가 생긴다면 국민들께서 더 불안해하시고 군에 대해서 실망을 하실 것입니다. 많이 힘드신 상황이지만 정국이 수습될 때까지 군은 고도의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유언비어도 많은 상황인데 각급 부대의 지휘관들께서 부하들과 후배 군인들이 동요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부대를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전사령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특전사령관 박종근 중장입니다.

○**유용원 위원** 사령관께서는 지난 6일에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707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특전사령관 비화폰으로 한 차례 전화해서 어디쯤 이동하고 있는냐고 물었다고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당시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당시 707특수임무단이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쯤에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냐 이 말씀 형태로만 여쭙보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알았다고 하시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 뒤에 또 추가적인 통화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신 건 없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

○**유용원 위원**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던 말씀이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예,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707특임단장이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 모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령관께서는 그런 취지의 지시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원 위원** 예.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 상황은 제가 전투 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마이크 방송이 이렇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건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는데, 실제 그것은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마이크 방송으로 전파가 돼서 그 상황은 예하부대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 부대 지휘관들하고 그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좀 하면서 이걸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국회의사당 본청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항명 사항이지만 명백히 국민의 생명과 우리 작전부대 요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 들어가서 강제로 할 때는 사람이 다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상황에서 작전을 중지시키고 그 상황에서 병력을 이동·통제하는 것만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100~150명은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전파된 내용이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위에서 지시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 주체가 김용현 전 장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제가 장관님이라고 일차 말씀을 드렸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유용원 위원**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사전에 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고 있었고 사전에 일부 부대 대기시키거나 훈련도 시켰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령관께서 계엄이 선포될 것을 정확히 아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제가 그것을 정확히 안 시점은 명백하게 TV를 보고 거기에 비상계엄령 말씀하시고 문구가 떠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게 비상계엄령이 발령한 거구나라고 딱 인식을 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사령관으로 상당히 책임감도 많이 느끼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부하등이나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께 사회의 말씀을 누차 계속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특전부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7분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전 중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마스크를 쓰고 답변을 하고 있고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벗었습니다.

○**허영 위원** 여기 707특임단장 나와 계십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나와 있습니다.

○**허영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마이크를 또 하나 뒤에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간이…… 중지시켜 주시고요. 행정직원들은 뒤에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어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이탈을 한 상태에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서 많은 양심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용기와 또 부대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문겠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지난 6일 곽 특전사령관과 김정근 3여단장과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언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말고 돌아가라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국방부 누구로부터 국회에 출석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는 직접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사령관과 3여단장과 제가 한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 수행하는 인원을 통해서 사령관께서 국방부에서 전원 복귀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다, 복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당시 사실 저희가 거의 서울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에……

○**허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가……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국방부라고 했습니다.

○**허영 위원** 수행인력으로부터 지시가 된 겁니까? 국방부입니까? 국방부 누구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누구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허영 위원** 그렇게 지시할 만한 사람은 누구로 짐작합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장관 대리분 아니면 없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장관 대리인,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허영 위원 좋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기자회견 중에 김용현 장관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들은 말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잘 못 들었습니다.

○허영 위원 기자회견 중에 김용현 장관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김용현 장관한테 들은 말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아닙니다. 그거는 언론보도에서 들은……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 중지해 주세요.

거기 지금 언론인이 그렇게 허영 위원님 옆에 서 계시다 보니까 카메라가…… 다른 분들 저기 있으면 약간 비켜 주시고요.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카메라 드신 분 말이지요, 좀 이쪽으로 오시든가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언론을 통해서 들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국회 투입 당시 광종근 특전사령관이 3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왔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한테는 끌어내라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세어 봤을 때 저한테 스무 통 정도의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전화 온 것은 제가 헬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저는……

○허영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빨리 들어가라는 의도였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기 가져간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서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진압 작전으로 규정했다고 하셨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래서 부대원 1명당 테이저건 1정, 공포탄, 방패, 포박 도구(케이블타이), 권총을 소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그 외에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는 별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침부터 준비한 사항은 말씀드린 그대로 훈련상황이었고 훈련에 대한 내용은 살상무기를 이용한 대규모 테러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허영 위원 알겠습니다.

특전사령관이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 직무대행 박성제 육군 소장에게 혹시 707특임부대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후임 대리 사령관이 주말 간에 저랑 3여단장을 불러서 차를 한 잔 했지만 그런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허영 위원 사실입니까?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내부 제보가 있는데.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아닙니다. 차를 마시면서……

○허영 위원 양심을 걸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3여단장에게는 ‘너는 언제 가냐’ ‘이사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저에게는 ‘혹시 뭐 연락받은 것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연락받은 것 없다고……

○허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와 계시지요? 잠깐 중지해 주시고.

○위원장 성일종 마이크를 거기서 좀 드리면 되잖아요.

○허영 위원 1처장, 지난 4일 새벽 1시에서 2시경에 방첩사의 영·위관급 법무관을 찾아서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의 서버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느냐 그리고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가라고 법무관들에게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맞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예.

○허영 위원 법무관이 7명이 있었다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그 법무관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5층에 법무실장 포함해서 법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팀장들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당시 팀장들에게 명령 하달할 시에도 약 23시 40~50분부터 한 30여 분간이었습니다. 그때 팀장들에게 명령 하달했던 내용은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의됐을 때 대부분 수사 경험이 있던 인원들이기 때문에……

○허영 위원 잠시 후에 밝히고.

그러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허영 위원 확실합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확실합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그 지시 외에 이것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가는 정성우 처장의 생각이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법무관들의 의견들은 강력한 반대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예, 법무실에 들어갔을 때 7명 전원 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계엄법 포함해서 각종 자료들을 들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 첫째, 23시 이후의 포고령인데 포고령 이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법성에 대한 사전의 증거자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부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음영, 필요시 상황 변화 시 서버에 대한 카피 문제에 있어서 이 카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그동안에 법적 절차에 대해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이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고 또 다른 의견으로 법무관의 의견을 주는 것은 어떠한 합수본부가 계속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이 절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허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묵묵히 조국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군 생활을 오래 했던 선배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12·12, 5·17 이후 45년간 지켜져 오던 군의 정치적 중립의 전통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국방위 전체회의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고 우리 장병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되 군의 사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은 제발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엄군에 참여한 장병들이 작금의 상황에서 놀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장병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육군참모총장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임종득 위원 현역 군인들의 언론과 인터뷰 절차 및 승인의 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방부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국방부에서 합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육군 통해서 보고는 안 이루어집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냥 바로 국방부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임종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군 예하의 어떤 지휘관이든 어떤 인원이 언론과 접촉을 하는데 육군본부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에 바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말씀은 아니고 계통은 받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잠시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 뒤에 정부 측에서 답변도 하고 계신데 거기가 다 금지선입니다. 지금 막 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가급적 질서를 지켜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분하게 질의를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기자분들 또 카메라기자분들께서 이동이 좀 많으신데 자제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 위원장석 뒤로 해서 이동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회의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계통은 자대별로 받습니다.

○임종득 위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누구 어떤 분……

○임종득 위원 최근에 주요 지휘관들이 유튜브라든가 언론에 지금 나갔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보고받은 부분은 없고 1명이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 와서 보고를 해서 그것은 육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보고를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작금의 지금 여러 지휘관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군의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왜 증거 인멸을 조장해!

○임종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박선원 위원 임 위원! 왜 입을 막고 증거 인멸을 조장하려고 그래!

○임종득 위원 조용합시다. 규정을 지금 따지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지금!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이따 의사진행발언을……

- 박선원 위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 박선원 위원 똑바로 해!
- 임종득 위원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 박선원 위원 당신도 안보실 1차장 할 때 이 내란음모에 가담했어, 안 했어!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 임종득 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 박선원 위원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할게. 똑바로 해!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 임종득 위원 어디 지금 반말을 해요!
- 박선원 위원 진실을 이야기하게 해야지 말을 막고 증거 인멸을 유도하고 있어!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 박선원 위원 질의 똑바로 해!
- 임종득 위원 지금 제 질의 시간에 들어와서 반말을 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 박선원 위원 그렇지. 할 수 있지.
- 임종득 위원 할 수 있어요?
- 박선원 위원 지금 그야말로 위증을 교사하고 있는 것 아니야?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 임종득 위원 그 발언 책임질 수 있어요?
- 박선원 위원 묻고 있잖아요, 위증을 교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 임종득 위원 말 놓을 거예요?
- 위원장 성일종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박선원 위원님이 끼어드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건 의사진행을 하실 거면……
- 박선원 위원 똑같은 현상이 정보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되잖아요. 박선원 위원님 인품 좋은데 왜 그러세요.
- 박선원 위원 진실을 말 못 하게 하고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 위원장 성일종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박선원 위원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원 위원 내가 임 위원하고 잘 아니까 오해받으실 수 있어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 박선원 위원 오해할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 임종득 위원 계속합시다.
- 박선원 위원 조용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득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규정과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많

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제가 오해를 받을 일이 뭐가 있고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그렇게 반말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자제 좀 해 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성질을 내고 평정심을 잃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지요.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그것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특전사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임종득 위원** 군 생활하면서 헌법과 계엄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전 교육기간에 들어 본 것 이외에는 그것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번 비상계엄의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어서 제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도 참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왜 ‘노(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지금 되돌아보면 초기에 투입될 때, 명령을 수령할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급박하게 명령을 계속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앞서다 보니 일단 먼저 출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엄 상황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중간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총기 사용 문제, 국민의 안전 문제, 국회의사당 들어가는 부분들도 들어갔을 때 반헌법적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항명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중간에 진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상황이 종결되면서 바로 작전을 철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계엄 상황을 맞았던 전 군인들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득 위원** 지난 8월부터 야당 위원님께서 계엄 준비, 계엄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 왔어요. 국방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대정부질문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을 ‘2024년에 무슨 계엄이나, 지금 거대 야당이 존재하고 해제 요구하면 바로 해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서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데, 우리 군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망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것 안 된다는 것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라고 할 수 없었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발언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공하면 성공한 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45년간 지켜 왔던 군의 정치적 중립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데 있어서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돌아서서 최초 명령을 받을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분명히 그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김병주 위원 저 잠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특전사 간 것 같고 얘기를……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잠깐 2분만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아니 김병주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 게요. 오전 내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김병주 위원 그래도 2분만 주세요, 그건 해명을 해야 되니까. 마치 비디오 출연한 것……

○위원장 성일종 그것 이따가 하셔도 되잖아요.

○김병주 위원 2분만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이따가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김병주 위원 아니, 지금 해야 시청자분들이 바로 알지요, 국민들도.

○위원장 성일종 아니, 회의를 어떻게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드립니까.

○김병주 위원 마치…… 좀 주세요, 2분만.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이따가 다 들고 난 다음에 하시든가 아니면 김병주 위원님 순서에 맞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는 중간에 얘기하려 그러다 참았습니다, 중간에 문제 제기하려고 하다가.

○한기호 위원 본인 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회의 진행은 위원장에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 시간 말고 신상발언을 달라니까요, 신상발언.

○위원장 성일종 신상발언을 제가 드릴 테니 위원님들 들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2분이면 되니까, 신상발언은.

○위원장 성일종 진행은 제가 하잖아요. 좀 제발 협조해 주세요.

○안규백 위원 주세요, 뭐 급한 일이 있는가 본데.

○김병주 위원 제가 간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비난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좀 주세요, 2분.

○위원장 성일종 아니,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오전에 끝내야 한다니까요.

○김병주 위원 끝내는데 2분 주면 되잖아요. 벌써 2분 지나갔어요.

○위원장 성일종 위원들 모두 그렇게 다 하자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 순서에 들어갈 때 제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다.

본 위원이 국방위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군 인사처럼 이렇게 작위적인 인사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신원식 전 장관은 10개월도 채우지 못했고 김봉수 합참 차장 51일, 정형균 육사교장은 7개월…… 총장님, 이렇게 단명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

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모르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내란 주동자들과 교체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짧은 주기의 인사 교체가 이루어졌냐고 보면 계엄을 위한 퍼즐을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총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인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다 확인하였습니다.

○안규백 위원 요인을 고려한다고 51일짜리 합참 차장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전쟁 중도 아닌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합참 차장은 대리 근무자 자리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분석은 못 했고 합참 차장의 인사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없어서 총장한테 여쭙보는 겁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총장은 12월 3일 계엄 당일 날 16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16시에 현안 토의가 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장관실에서 장관님하고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하고 누구하고 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저하고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둘이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안규백 위원 그런데 왜 당일 날은 아무 일정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무 일정이 없다고……

○안규백 위원 지난번에 계엄사령관 자격으로 왔을 때 그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육사 취임식도 있었고 일정은 많이 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육사 취임식도 급하게 만든 일정 아니겠습니까, 원래 일정에 없었는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도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면 되지만……

○안규백 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전에 방첩사 참모장이 진급을 했어야 되고 진급해서 참모장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전속이 3일이 보장됩니다. 그다음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4일 날 총장은 KAIST하고 계룡대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왜 안 내려가고 서울에 있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좀 와 있으라고……

○안규백 위원 4일 날, 그다음 날, 익일 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 전날 현안보고드리고 나올 때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지 않고, 그전에 이미 표는 다음 날

나가는 길로 정해져 있었는데, 다음 날 국군중앙교회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7시 몇 분 정도로 미리 표를 끊어 왔던 길로 기억합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총장께서 내란도 모자라서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 자료를 맞춰 보겠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님!

○**위원장 성일종**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그 자리에 계시고요. 중지해 주시고 마이크를 드리세요.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받았습니다.

○**안규백 위원** 본 위원이 4일 날 새벽 05시 50~55분 어간에 국회 지하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위원을 제지나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창문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 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아니, 본 위원을 지하통로에서 마주쳤잖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때 상황 판단이 어땠냐 이런 얘기입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는 위원님을 알기 때문에 위원님을 뵈었을 때 순간 ‘위원장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위원님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별도 소동이 없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알았습니다.

이경민 소장, 지금 방첩사직무대리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안규백 위원** 방첩사령관이 지금 불출석해서 대신 묻겠습니다.

12월 1일 날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서 돌연 북한 도발의 임박함을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내렸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12월 2일 날 퇴근 전부터 사령관 집무실에서 참모장, 1차장과 함께 ‘VIP가 23시 30분경 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 선포한다’ 그래서 14명의 체포 명단을 지시했고 05시 25분에 출동 지시를 내린 바 있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위원님, 그건 12월 3일 상황이고 12월 2일은 사령관님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3일 상황인데 그때 국회의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없었어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안규백 위원** 국정원 홍 차장, 1차장의 그 명단이 사실입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저는 모릅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우선 체포조가 우원식, 이재명·한동훈 대표로 나와 있고 또 체포 대상자가 국정원에서 말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던데……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해주, 이학영, 양경수, 김어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들은 바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들은 바 없어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안규백 위원 본인이 참석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작성한 리스트인데……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참석해서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23시경에 야당의 대표와 여당의 대표를 포함해서 14명의 리스트를 넘겼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회의에 참석한 서류가 여기 있는데……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23시 30분에 회의라고 하시면 계엄 선포 이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 위원 계엄 선포와 함께.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그 말씀을 회의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어떤 얘기 했습니까? 12월 2일 날 퇴근 전부터 집무실에 모여가지고 사령관, 참모장 또 1차장과 함께 12시 30분경에 ‘VIP가 계엄 선포한다. 그래서 이 14명을 우선적으로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데?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12월 3일 저녁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오전에 일단 제가 받은 지시는 ‘지금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각 처·실장들 오늘 음주 자제하고 그다음에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 그리고 참모장은’……

○안규백 위원 내 말의 취지는 14명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리스트를 누구한테 받아서 언제 하달했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저는 받은 적이 없고 하달한 바도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어요?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육군참모총장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내란이 위헌인지

몰랐다, 불법 계엄 잘못된 건지 몰랐다, 법적 검토를 다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육사 나오셨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육사에서 뭘 공부했어요? 전공을 뭐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토목공학 했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공학을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추미애 위원 지금 보니까 답답하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조금.

○추미애 위원 있을 수 없는 답변이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추미애 위원 광종근 특전사령관 나오세요.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뭐 전공하셨나요, 육사에서?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근 화학과 전공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화학과 전공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근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마찬가지로 귀관계서도 명령은 복종해야 되고 이 내란이 위헌인지 몰랐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지금도?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근 아닙니다.

○추미애 위원 이제는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근 예.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지금도 후회스럽지만 최초 명령을 받을 때 거부를 하지 못한 것이 참 뼈아프고 후회스러운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추미애 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근 비상계엄을 정말 할지 모르다가 그게……

○추미애 위원 비상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방송 보도 보고 알았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근 방송 보도된 거기에 비상계엄 뜨면서 알았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런데 이 계엄 당시에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불같이 화를 낸 사실이 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근 그것은 불같이……

○추미애 위원 왜 화를 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근 화를 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헬기가 출동을 했는데 용인 상공에서 10분 동안 계속 선회 대기를 해서 제가 왜 안 가냐라는 것을 두세 차례 크게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안이 시끄러워서 도대체 왜 안 가냐, 무슨 이유로 가냐, 어디서 잘못된 거냐 이런 것들을 막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 부하들이 질책으로 느낄 수도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 헬기 출동이 늦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헬기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아무런 소요도 없고 여기 국회가 테러부

대에 의해서 대테러당한 것도 아니고 대테러작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707부대 이동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즉각 병력을 다시 철수시키든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헬기가 선회하고 있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불같이 출동이 늦어진다고 화를 냈다는 건 이 작전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미애 위원 그래서 오히려 방송 보고 알았다가 아니라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게 합리적이겠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작전을 빨리 성공시키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빨리 이동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헬기가 10분 동안 공중에서 안 가고 떠있었기 때문에 이동 상황을 체크하는 수준이었고 그 당시가 시끄러워서 두세 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부하들이 제가……

○추미애 위원 왜 시끄러웠습니까? 시민들이 국회 들어가면 안 된다, 군인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저항하고 있었고 국회는 아무런 폭동이나 이런 게 없었고 오히려 군인들이 난입한 것이 무력 폭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도 있었고, 헬기가 오히려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회를 했다면? 그런데 왜 증인은 태세를 안 바꿨습니까? 현장 지휘관이 태세를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밑의 장병들은 그냥 나온 것이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누누이 여당 위원도 얘기하고 위원장도 얘기하시던데, 맞는 얘기지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현장 지휘관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뭐 했습니까, 그런데?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초 명령받았을 때 이동 지시를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뼈아픈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드렸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오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마이크를 거기 드리세요, 빨리.

○추미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기억하시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예,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이것 보세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예.

○추미애 위원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 언제 작성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23년 7월경입니다.

○추미애 위원 23년 7월경?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UFS 연합연습 대비 참고자료입니다.

○추미애 위원 연합연습은 3월에 하지 않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2월에 FS 연합연습이 있고 8월에 UFS 연합연습이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7월에 작성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전행 업무가 2차 예하 대테러실 작성 업무 아닙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렇지 않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런데 왜 비서실에서 작성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23년 2월은 전임 황유성 사령관 재직 시입니다. 그때 2월에 논의했던 FS 연습의 합수본부의 관련 사항은 통합방위 사태 관련과 계엄법 이후 합수본부의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가 심도 있게 토의가 됐습니다. 그 토의 자료가 7월, 8월 때 개선된 방향이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따로 정리해서 사령관님께, 2월에 논의했던 내용의 일반적인 전시 전환 절차에 관련된 참고사항, 그때 논의했던 내용들을 요약한 자료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계엄업무실무편람과 해설서, 기타 거기에 들어 있는 모든 내용이 종합돼 있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 계엄업무실무편람을 다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이버 수사업무 통합시행 방안은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위원님, 제가 그 문서를 최근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합수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보강 소요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기관별 수행 중인 사이버 수사 업무를 통합시행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이버사, 정보사가 중앙선관위를 침탈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위원님, 그 말씀하신 자료가 어쨌든 의원님실에 제공이 됐으니까 그 자료와 최초의 작성일지를 수회 확인해서 작성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 보고 똑같다면 그게 언제 작성됐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미애 위원 그러면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지금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그 자료를 최초 작성했던 인원도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왜 그 문구가 들어갔고 했는지를 23년 2월 FS 연습 때 논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 간부들이 간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증빙이 됩니다.

○추미애 위원 이게 원래 대테러실이 작성해야 되는데 사령관 지시로 비서실에서 11월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비밀 유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여기서 한 것 아닙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대테러 업무는 관련되지 않고 전시 전환에 대한, 계엄에 대한 합수본부의 임무는 기획관리실 작전조직과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는 비서실로서 지휘 보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추미애 위원 비서실에서 그러면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통합방위 사태도 아까 그런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이것이 국지전을 염두에 두고 양구군 침투처럼 준비한 것 아닙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위원님, 받으신 자료와 최초 작성했던 내용이 똑같다면 그 시점 차이를 23년 2월이나 7월……

○추미애 위원 최초 작성에 여러분들은 전두환 신군부의 5·17 포고령도 다 활용을 했어요. 그것하고 똑같다고 지금 얘기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위원님,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조금 전에 박선원 위원님이 군인들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군인복무기본법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에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부칙으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일부는 육군참모총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군인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맞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임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다음에 제가 좀 물어볼 만한 것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계엄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엄은 계획 자체를 검토해야 된다.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정감사를 받은 참모총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엄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인신을 구속하거나 할 수 있는 제한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계엄을 선동한 한기호’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계엄을 선동했습니까? 계엄 계획을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계엄을 선동할 리도 없고 선동하지도 않고, 어제 제 입장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참담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물론 제가 여당 국회의원이고 군 출신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인신공격이고 지나친 겁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좀 유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인복무기본법 24조에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서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규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엄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발생해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군인 여러분들, 다 저의 후배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군 생활할 때 계엄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스터디 자체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희생양이 된 겁니다. 정말로 선배로서 가슴 아프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된 거예요. 앞으로 수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군인으로서 항상 바른 자세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진실 그대로 수사를 받으면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더 이상,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이걸로 인해서 처벌받고 징계받고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명령을 받고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 명령을 수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느냐의 문제지, 불법이 있느냐의 문제도 여러분들은 명령이 우선이었을 겁니다. 그게 군인의 기본자세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예산안이 아마 의결될 겁니다. 이 예산안이 의결되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인들의 이와 같은 사기가 완전히 저하된 상태를 챙겨 주고 싶으시다면 지난번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증액 심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증액 심사한 내용들이 간부의 당직근무, 초급간부 봉급, 기본급식비, 작전·훈련 간의 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이사화물비, 소대장 활동비 이러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인들의 사기를 다시 한번 죽이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군인을 사랑하고 있다, 국군을 믿고 있다 하는 모습을 꼭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범계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 오늘 예산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영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군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군을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총장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부승찬 위원 오브 더 피플(of the people) 바이 더 피플(by the people) 포 더 피플(for the people), 누가 한 얘기예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링컨이 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링컨이 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부승찬 위원 우리 군대에 주는 함의는 뭐예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저희들이 늘 살아왔던 것처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국민들한테 충을 겨눴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우리 군이 문민 통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이 문구만큼 좋은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충부리를 겨누었어요, 그게 실탄이 장전되든 안 되든.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내가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육사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61년도에도 그렇고 80년도 그렇고 전부 육사 중심이야.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이 뭔지 아십니까? ‘1. 방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게 뭐냐 하면 군의 역사를 어디서 계승할 거냐. 그래서 제가 국군조직법에 한 국광복군과 독립군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로서 넣었어요. 독립군, 한국광복군이 얼마나 처절하게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본군의 잔재가 이거예요. 일단 저질러 그리고 추종해. 만주사변이 그랬고요 진주만이 그랬고요. 이게 일본식 군대 의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육사 서울에 있을 필요 없어요, 내려가야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장님께서 육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관여된 사람이 전부 육사 출신들이예요. 광복회장이 급하게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저질러.

그리고 여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전부 몰랐어요, 전부. 아무도 몰랐어. 뉴스 보고 알았어. 어떻게 계엄이 됩니까? 군이 내재화되고 체질화된 게 있잖아요.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SOP는 어떻게 되고. 그런데 다 책임회피들만 해요. ‘잘못 없습니다, 우리 부하들은 잘못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TV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러면 김용현 단 1명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총장님, 휴대폰 교체하셨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교체 안 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하지 마세요.

3일 저녁에 19시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퇴근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퇴근했다가 언제 국방부로 가셨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21시 40분 좀 전에 갔던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거기 장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대기실에 있다가 지통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했지요? 1차 제지당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지가 아니고 국방부 대기실에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거기 기다리던 사람이 다 내려갔습니다.

○부승찬 위원 전체적으로 다 프리패스 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안 됩니다. 저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같이 가 줘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계엄사령관인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부승찬 위원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몇 시에 들어갔어요? 정확한 시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어디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시는지.

○부승찬 위원 지통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 지통실에 들어갔고 임무 수행……

○부승찬 위원 몇 시입니까, 그게 9시 40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닙니다. 한 10시 25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 10시 25분에 지통실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대통령 있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안 계셨습니다.

○부승찬 위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합참의장 있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합참의장도 그때 딱 들어갔을 때는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 없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부승찬 위원 그다음에 합참차장 있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합참차장은 저하고 기다리다 같이 들어가서 내려갔습니다.

○부승찬 위원 같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작전본부장 있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합참차장, 김용현 장관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도 없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없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부승찬 위원 어떤 지침을 받고 내려갔습니까? 우르르 내려갔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지통실로 가라 이런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누가 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르르 하고 내려갔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김용현 장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는 정확하게 위치를 몰랐고 나중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몇 분 차이에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 몇 분 차이로 들어오셨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부승찬 위원 주요 인물들이 김용현 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총장님께서도 김용현 장관한테 첫 지침을 받은 게 됩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화상회의할 때 명령하셨던,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부승찬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 1시쯤에 대통령이 지통실로 왔어요.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맞습니다. 1시 좀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대통령, 장관, 의장, 총장, 정진팔 차장 5명이, 지통실 옆에 작은 방이 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거기에 5명만 있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닙니다. 처음에는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나가라고 했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부승찬 위원 그래서 5명 남은 거예요? 장관, 의장, 총장, 정진팔 차장, 대통령.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처음에는 몇 명이 남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 사람들은 남아 있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다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왜 몰라요, 이 5명이 핵심 주요 보직자들인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닙니다. 나중에 저하고 장관 남았고 최초에 5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좀 이해가 가요. 아니, 이게 뭐 갑자기 생똥맞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아마 당시 명령을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또 다그치고 하니까 상황은 계속 가고 그다음에 그 과정 과정에서 군의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지위가 낮은 분들이 더 의연하고 당당하셨던 것 같아요. 맨 위의 상층부에 계신 지휘관들보다는 훨씬 그분들이 더 상식적이고 원칙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군이라는 것이 상명하복이지요. 그러니까 밑의 명령을 따르는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린 위의 지휘관들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라고 지휘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라고 명령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군이, 국민들과 또 여러분들 부하들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반면교사 삼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제가 바람막이가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계엄에 대한 생각 그것도 생각하셔야 될 게, 다 전두환도 생각하고 또 장태완 장관도 생각날 거예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광주 5·18 그 끔찍했던 살육의 현장 그것을 다 기억할 겁니다, 하얀 띠 두르고 총칼을 쓰던 계엄군의 모습.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것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총장님, 계엄사령관이 딱 되셨을 때 이 목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계엄 상황이 언제면 끝나겠구나 이런 달성 목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인식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황희 위원 그 정도는…… 아니, 지금 제가 일반 사병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군참모총장이잖아요. 그중에서도 또 계엄사령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계엄사령관이라는 직책이 떨어지고, 육군 대장이 떨어졌으면 육군 대장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군인, 육군의 수장으로서 뭘 하겠다 이런 다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육군참모총장으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서 이 계엄의 달성 목표가 뭐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렇지 않은데……

○**황희 위원** 어떻게 하면 계엄이 종료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단상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좀 당황스럽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황희 위원**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장관님께서 그때 전군 화상회의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희 위원** 총장님, 우리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있고 국방부장관도 있는데 육군참모총장을 두고 합참의장을 두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군령을 움직이기 위한. 그러면 뭐 하러 육군참모총장을 둬니까, 국군통수권자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있고 국방부장관이 있으면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면 제복을 입은 군인은 제일 위에 아닙니까? 그것 왜 판단을 자꾸 마치 무슨 이등병이 상병 병장한테 명령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안 창피합니까? 대통령, 국방부장관 그분들 민간인이예요. 계속 무슨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다’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부하들 뭐가 됩니까?

성질이 나 가지고 제가 이것을……

방첩사 직무대리 있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황희 위원** 이게 갑자기 올 초에 4국이었던 게 왜 5개 국으로 바뀌었지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해경이 하나 포함됐잖아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하던 처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희 위원** 그것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제가 그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뒤에는 알았을 것 아니예요, 왜 4개 국이 5개 국이 됐어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사실 저희 부대는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황희 위원** 자, 합수단 야외기동훈련(FTX)을 언제 했지요? 올해 3월에 했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FS 연습 때 한 것은 기억나는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황희 위원** 올해 3월에 했어요.

그러면 올해 3월 전에, 그 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황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첩사 병장이랑 얘기할까요? 누구랑 얘기해야지 않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무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황희 위원 누가 업무 담당합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

○황희 위원 아니, 대한민국 군인들 여기 다 모여 있는데 방첩사 계엄 합수단이 야외 기동훈련 한 거 언제 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상당히 오랜만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계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누군가에 의해서는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그 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총장님, 방첩사 합수단 FTX 야외 기동훈련 언제 언제 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위원님, 제 기억에 FTX 야외 기동훈련이 아니라 그냥 합수단 운용 관련해서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 기동훈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훈련이 그전에 언제……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많이 부족하지만 여당 간사로서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잘 끌고 가고자 많은 다짐을 했지만 2024년도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육군 병장 출신밖에 안 되지만 군인은 군인다워야 된다, 군인스러워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을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은폐 엄폐하지 말고 군인답게 사실을 말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차관께서 오셨더라면 정말로 이 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진실규명을 하고 조속히 군 기강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차관한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을 부탁하고 싶었는데 오늘 오전 회의 관계로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유난히 지금 현재를 보면 방첩사에 대한 제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각각 관계자는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포고령은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을 했고 11월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수사에서 포고령은 직접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이창엽 비서실장 계십니까?

○국군방첩사령부비서실장 이창엽 예,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국정감사 때는 기획관리실장까지 2개의 보직을 맡아 매우 고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비서실장 이창엽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비서실에서 포고령을 작성한 적 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비서실장 이창엽 작성한 적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비서실에서 진짜 포고령을 작성한 적이 없지요?

○국군방첩사령부비서실장 이창엽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신원보안실장 계십니까?

두 분 다 일어서 계세요.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입니다.

○강대식 위원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방첩사에서 작성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제가 작성한 바 없습니다. 방첩사에서 작성한 바 없고 저는 관련자가 아닙니다. 관련 담당……

○강대식 위원 비서실장도 작성한 적 없지요?

○국군방첩사령부비서실장 이창엽 예, 저는 작성한 적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이 전시 작전계획과 관련한 평시 업무로 연말쯤 저와 관련 참모들이 검토하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님과 신원보안실장님, 누구의 주장이 맞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비서실장 이창엽 일단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희 비서실에서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지금 보직이 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신원보안실장은?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 업무는 신원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련 건은 해당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검토한 바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이런 자료는 연말쯤 하는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면 됩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손을 들)

○강대식 위원 일어서세요. 신원 밝히고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현재 방첩사 1처장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아까 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와 동일합니다. 그 자료는 전임 황유성 사령관님 재직 시 23년 7월에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이고 23년 2월 FX 연습 간부교육 토의 결과를 반영해서 계엄 업무 실무 편람과 해설서, 각종 공개 자료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난 23년도에 작성한, 연말쯤 하는 일상적인 업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전임 사령관께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연말에 일상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강대식 위원 아니라고요?

됐습니다. 두 분 앉으세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무인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조사를 했었고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우리가 보유한 무인기와 유사하다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완강하게 부인하는 바람에 국방부를 믿고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야당 위원님들에 따르면 이 무인기가 방첩사가 기획해서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백령도로 가지고 가 가지고 평양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북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참모장님,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강대식 위원 차관님이 없어서 제가 이거 질의…… 사실 아니라고 분명히, 사실이 아닌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무인기 관련된 내용은 저희 방첩사 업무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강하게 방첩사 기획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사실이 아니면 똑바로 잡아 주고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방첩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에게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를 했고 합참의장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합참에 서는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는데.

(성일중 위원장, 부승찬 간사와 사회교대)

합참 작전본부장님.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작전본부장 이승오입니다.

○강대식 위원 원점 타격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일부에서는 원점 타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서 국지전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을 계엄을 명분화시키려는 이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런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그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부승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부승찬 이어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김병주 위원 아니, 전데.

○위원장대리 부승찬 아니요, 순서대로 합니다.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아니,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지금 바꿀게요.

○김병주 위원 아니, 다시 가면서 바꿨다고. 가면서 또 바꿨다니까.

○박범계 위원 다음 다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위원장대리 부승찬 위원장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박범계 위원 지금 하시라고요.

○김병주 위원 원래대로 한다고 바꿨잖아.

○강대식 위원 맞아요.

○위원장대리 부승찬 원칙은 지켜 주시는 게 맞고요.

○김병주 위원 신상발언하고 할 테니 2분 좀 주세요. 아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대리 부승찬 알겠습니다.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여당의 한 위원님께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현역들 하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와 관련된 걸 언급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를 항의 방문을 6일 날 해서 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빗대어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왜 갔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참가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계엄사령관하고 장관대리만 와서 제대로 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제가 가장 핵심인 특전사와 수방사를 저하고 박선원 위원이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가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지요,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주블리 김병주 라이브를 틀고 주변 분들에게 인접해서 틀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조치를 하라고, 위협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국방위 차원에서 방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괜히 입틀막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김용현 씨가 국방부장관 지명됐을 때 계엄이 가능하다고 최초로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앞에 계시는 국민의힘 위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 다 나서서 괴담이다, 망상이다, 황당하다 하면서 저의 문제 제기, 우리 당의 문제 제기를 입틀막했습니다. 만약 그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위원장대리 부승찬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만약 그때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한 분 만이라도 검

토하라고 임무를 줬다면 우리 군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위원은 사과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발령됐는데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할 때 최소한 국방위 위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국회의원님, 앞에 계시는 국방위원님들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한기호 위원 일본에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할 때 이것이 분명한 내란인데 본회의장을 이탈하고 계신 분 있었습니까? 도대체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경비단장 나와 주세요.

○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1경비단이 비상계엄 때 1개 대대는 국회로 투입이 됐잖아요?

○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 조성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개 특임대대 마이너스가 투입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1개 대대가 한남동 지역에 가서 출동 대기하고 있었던 데 맞습니까?

○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 조성현 출동 대기가 아니고 한남동 관저 외곽을 경계 보강을 협조받아서 사령관 승인하에 경계 보강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몇 시에 투입했지요?

○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 조성현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01시 이후에 출발을 해서 투입된 이후에 04시 40분경에 임무 해제가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대통령은 용산에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방어하러 간 것 같이 보이네요.

그다음 1개 대대는 서대문 일대에 출동 대기하고 있었던 데 맞습니까?

○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1경비단 전 병력이 출동한 거네요?

○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 조성현 정확히 말씀드리면 1경비단 2개 특임대대가, 마이너스 1개 지역대가 인제에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수방사는 특임대대만 간 것이 아니라 1개 대대는 한남동에 1개 대대는 서대문 일대에서 출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문상호 사령관입니다.

○김병주 위원 정보사령관은 그때 비상계엄을 위한 TF를 만들었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HID 부대는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습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김병주 위원 무슨, 참가했던 정확한 정보가 있는데.

그리고 선관위에 갔던 정보사 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사령부 인원입니다.

○김병주 위원 사령부 인원, 몇 명 갔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10명 갔습니다.

○김병주 위원 10명, 영관급으로 편성했나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당일 오전 몇 시쯤 기억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임무는 뭐였습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첫 지시는 해당 주의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이겁니다.

○김병주 위원 어디로 투입한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혀 없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거기는 대기를 시켜서 몇 시에 출발시켰나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첫 지시 이후에 당일 날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걸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고요.

드론작전사령관님 나와 주세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드론작전사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대에 불이 났었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불이 났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안에 무슨 장비가 있었습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하고 발사대 이런 부수장비들 이런 것들이 좀 불이 났습니다.

○김병주 위원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 띄우라고 지시받았습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잘 못 들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임무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부승찬 간사, 성일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주 위원 왜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2개 지역 연천과 김포 일대에서 띄웠던데 어디에서 띄웠습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드론사가 평양에 가는 무인기를 띄웠고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부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거기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이라든가 이것을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 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누가 불을 태웠다고……

○**김병주 위원** 거기 불이 났잖아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불이 난 건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증거 인멸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김병주 위원** 박 장군 어디 있어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김병주 위원** 제보를 받은 거고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불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제가 여단장한테 보고받은 것은 아마도 감전일 것이다. 지금은 현재 우리 부대원들이……

○**김병주 위원** 감전으로 보고는 됐는데 환풍기 쪽에 불이 났다고 보고됐는데 이 시기에 왜 거기에 있는 장비에 불이 납니까? 심히 의심할 수 있지요.

박헌수 장군 나와 보세요.

여기에 대한 증거인멸로 보이니까 드론사령부, 그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시킨 부대 확실하니까 빨리 압수수색 들어가서 증거 확보하세요.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예, 적법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합참차장 나와 주세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합참차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합참차장은 김용현이 9사단 작전참모 할 때 그 밑에서 근무했었지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여인형 사령관도 같이 있었지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김병주 위원** 무슨 직책 했나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여인형 사령관이……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분이 경찰분이시지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김건희 경호팀장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어디서 근무하고 있나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강동?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김병주 위원** 경호팀장 한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이건 또 확인이 필요하고요.

실제 이번 작전에서 합참차장도 핵심 중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심이라는 제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봉수 합참차장을 51일 만에 보직 변경을 시키고 정진팔 차장을 했지요. 오랫동안 김용현 장관과 인연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위해서 합참차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장관님하고 한 통의 전화도 한 통의 문자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날 지명받은 게 첫 번째 제가 본 직접적인 접촉이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 신상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말씀하세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지명을 받고 몇 분 동안 분리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차장님, 차장! 질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어요. 있었냐고 확인했잖아요. 내가 언제 있었다고 제보받았다고 그랬어요. 있었냐고 확인한, 물어본 것을 내가 언제 제보받았다고. 아니, 질의를……

총장, 총장! 내가 언제, ‘장관 있었습니까, 의장 있었습니까, 합참차장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질의하였습니다.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질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반박을 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답변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거에 충실하게 짧게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신상발언을 요청하셨는데……

○한기호 위원 30초면 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아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끝나고 뒤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추미애 위원님과 저와 같이 위원장님하고 우리는 일본에 있다가 급하게 귀국을 했는데 계엄발령한 날 뭐 했냐고 우리한테 질의하는데 추미애 위원님 뭐 하셨어요? 그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 김병주 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니, 잘났습니다. 그러면 왜 탄핵할 때는 동의 안 하셨습니까? 나갔습니까? 탄핵할 때는 왜 나가셨어요?
-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위원님 그 내용하고는……
- 한기호 위원 아니, 탄핵할 때 동의를 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 김병주 위원 대통령 탄핵하는 날은 왜 자리 뒀습니까?
-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 한기호 위원 탄핵할 때 무엇을 동의해요, 동의하기는.
- 김병주 위원 이거 내란죄면 탄핵을 해야 되는 거지요.
-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위원님.
- 한기호 위원 그것은 개인의 의사예요.
- 김병주 위원 왜 국민의힘은 탄핵할 때 나갔습니까?
- 한기호 위원 뭐 이런 엉터리같은 질의를 해요.
- 김병주 위원 국방부 위원이면, 내란죄면 이건 엄중한 건데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 한기호 위원 말을 똑바로 해요!
- 김병주 위원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 한기호 위원 똑바로 해요!
- 김병주 위원 (위원석 뒤에서)  
무슨, 정신 좀 차리세요!
- 한기호 위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군장성 출신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 김병주 위원 (위원석 뒤에서)  
진짜 저런 분이 장성 출신이란 게 창피하네요, 창피해.
- 한기호 위원 저런 사람이 말이에요, 거짓말이나 하고!
-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 김병주 위원 (위원석 뒤에서)  
국방 국민의힘 국회의원 너무 창피해요. 같이 있기가 창피합니다.
- 위원장 성일종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 김병주 위원 (위원장석 뒤에서)  
아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에 5일 날 저분들 다 모시면 왜 특전사가 가겠어요. 왜 그날은……
-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 김병주 위원 (위원장석 뒤에서)  
왜 특전사령부 오다가 돌아가게 했습니까.
- 한기호 위원 나가려면 나가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헛소리하지 말고.
- 김병주 위원 (위원장석 뒤에서)  
왜 돌아가게 했습니까.
- 위원장 성일종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격하게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오늘은 관계자들이 와 있습니다. 진실에 접근을 하는 날입니다. 서로들 좀 자제하시고 또 상대도 배려하시면서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막 얘기를 하시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저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후방기지를 가기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한테 다 공지를 드렸고 그 일정이 다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좀 선후를 짚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감정을 낮추시고 오늘은 참석하신 관계관들한테 차분하고 침착하고 아주 냉정하게 질의를 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끼어들거나 또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여기서 하시면 국민들께서 진실은 접근하지 아니하고 여야가 또 싸움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실 겁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웬간하시면……

○임종득 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신상발언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

○임종득 위원 아니, 아까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신상발언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러게, 지금 또 신상발언을 하시면 이게 전부 다 에스컬레이트(escalate)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믿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정리가, 발언 끝나고 난 마지막에 제가 기회를 드려서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나는 가만히 묵직하게 있자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위원장 성일종 하여튼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

○박범계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 지금 요청하는 사항.

○위원장 성일종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범계 위원 아까 방첩사 1처장이 우리 훌륭한 법무실의 법무관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법무실장이 당연히 출석을 해서 재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실장을 오후 회의 때 반드시 재정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재석 안 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범계 위원 예, 법무실장.

○위원장 성일종 법무실장, 우리 양당 간사님 좀 말씀하셔 가지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곽종근 사령관 나와 보십시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박범계 위원 아까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지요,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

○박범계 위원 사령관님, 전화 받으셨지요? 사령관님!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 사실도……

○박범계 위원 받으셨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박범계 위원 지금 한 10초간 말씀이 없다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받으셨지요?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곽종근 사령관, 받으셨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예.

○박범계 위원 그 제한되는 내용이 뭐니까?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뭐니까?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것만이 꼭 사령관의 책임이 그나마 감경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

○박범계 위원 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박범계 위원 사령관,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박범계 위원 그 시간,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사령관은?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어디까지 가셨다는 게……

○박범계 위원 어디 있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전투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들어가십시오. 책임이 별로 가벼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는 점은 평가합니다. 들어가세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나와 보세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입니다.

○박범계 위원 아까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중앙선관위 서버에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갔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거기서 소위 선거인명부 관련해서 통합선거인명부 그것을 가져오라는 지시 받았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서버를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제가 지시를 했고 팀장입니다.

○박범계 위원 팀장 이름이, 누구입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별도로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알아야 돼요.  
누구입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박범계 위원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선거부정이 있었다, 계엄군을 투입해서라도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범계 위원 처음 들었다.

들어갔던 그 대령인가 중령인가 하는 정보사 요원이 누군가로부터 서버와 관련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의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본인입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정확하게 위원님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서버에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그 정보사 요원이 보고를 했어요, 전화로. 그것이 CCTV에 찍혔지 않습니까, 당신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제가 지시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사령관이 보고를 받았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때 사람 덩치만큼 큰 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진이 있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범계 위원 들어가요.

별로 개전의 정이 없구먼.

방첩사 1처장 나오세요.

1처장, 날 봐요.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것은 모릅니다.

○박범계 위원 몰라?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예.

○박범계 위원 아까 합수본부 이런 얘기를 했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합수본부가 구성이 됐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위원 않았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예.

○박범계 위원 계엄사령부 직제령에 의하면 합수본부를 둘 수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계엄사령관의 추천을 받아서 합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알고 계시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1979년 소위 그 쿠데타, 그 비상계엄 때 계엄공고 5호로 ‘합동수사본부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계엄법 16조에 규정된 범죄 및 포고령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우리나라 장군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고위급 장교들은 헌법과 법률과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법무관들이 맹렬하게 영웅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법무관들이 반대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태업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명령 이행에 대해서 중단을……

○박범계 위원 만약에 처장이 법무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들어가는 것 태업을 해라라는 지시 안 했으면 사실은 방첩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아닙니다.

○박범계 위원 정보사가 들어간 것은 왜라고 생각합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 배경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저희는 계엄 선포 이후에 사령관으로부터 뒤편 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실장들을……

○박범계 위원 법무관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던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이것이 군사반란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포고령에 아까와 같은 합수본부, 우리나라 국민들 합수본부 하면 전두환, 보안사령관, 합수본부장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었어요, 합수본 설치가. 포고령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시늉만 내도 내란 공동정범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달할 때 소집됐던 팀장들……

○박범계 위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들어가라는 보도 보셨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제가 지시한 겁니다. 사령관의……

○박범계 위원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여인형 사령관이 지시하고. 그래서 들어가라. 맞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때 명령 하달을 지금 말씀드립니다까?

제가 여인형 사령관에게 지시받았던 사항들은 23시 계엄포고령 1호가 발동이 되고 그 이후에 굉장히 어수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전산팀을 꾸려라 그리고 인원 나갈 때 장비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사령관께서. 저 역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임무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밑에 편성된 팀장들도 제 임의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등 전산센터에 이동하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IT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원들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단장, 과학수사센터장, 사이버보안실장 그리고 군사보안실장 등 대령급을 팀장으로 소집을 합니다. 대령급을 팀장으로 한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래도 군 생활을 많이 했던 우리 부대 대령급이라면 충분히 현장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원들이 1차장실에 도착한 시간은 23시 삼사십 분경입니다.

포고령 발표 나고 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첫째, 사령관님께서 대통령님, 장관님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다.

둘째, 1차장은 우리 부대원 보호 및 조직 보호가 최우선으로 적법한 절차를 절대 준수해라. 절대 통제 없이 행동하지 마라.

3번, 포고령 2번 항목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등 위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4번, 임무는 중앙선관위 등 4개소 현장 위치, 의명, 상황 변화 시 서버실 출입 통제 등 서버실 확보 후 대기, 과천·관악 중앙선관위, 수원연수원 등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라는 팀장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봐라. 나도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4개 팀으로 구성한다. 투입 인원 편성, 부대원들이 소집되는 대로 출동을 준비한다. 수사관이 포함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는 합수단의 개소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 4개 팀에 특사경의 수사관을 편성해라. 수사관이 없으면 우리 행동 자체가 불법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편성은 수사관 5명, 기술을 하는 기술지원팀 10명 그리고 거기 인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안전지원팀 10명, 각 팀별 약 25명씩 4개 팀을 편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면서 반드시 건물 투입 전에 경찰에 의한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다. 해당 시설 근접에 도착 시 임무 수행은 반드시 1차장의 통제를 받아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해당 시설 진입 시 의명, 필요 시 채증 등 적법 절차 준수를 재강조하고……

○위원장 성일종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요.

그 지시사항들이 정리가 다 되어 있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때 구두를 제가 자필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해서 박범계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세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팀장들은 임무 편성을 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는 법무실로 올라가고 법무실 올라갔을 때 법무실장 등 7명의 법무관들이 있었고 그 인원들 대상으로 하나 하나 하나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타임별로 정리를 해서 박범계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먼저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군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예비역 장군으로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참담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유사시 명령이 부여되면 최대한 신속히 작전지역에 투입하고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무장된 집단입니다. 따라서 상관의 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다하는 지휘관이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손자병법의 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손자병법 제8편 구변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어떻게 임기응변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수가 위태로운 다섯 가지, 필사가살(必死可殺)부터 애민가번(愛民可煩),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군대생활을 한 지휘관들, 장병들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 본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지금 이곳에 계신 장군들, 장병들 또 야전에 계신 모든 간부와 지휘관들은 깊이 그 책임의 막중함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저는 매우 걱정됩니다.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해서 각 군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확고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각 군의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해서 휘하의 장병들이 군 본연의 임무에 벗어나고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 3항 국군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일이나 행동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신상발언 1분만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렇게 하십시오.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국민 여러분!

제가 계엄 시도에 대해, 의도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에서 그리고 광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특전사 국감에서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할 때마다 야당 위원들과 해당 지지자들은 정치 선동이다, 망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끊임없이 그걸 추적하였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며 균형법 제5조 반란 행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행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수괴는 사형, 그 외에 모두 가중처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계속해서 제2, 제3의 계엄령을 막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7분으로 들어가면서 필요하신 건 연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7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간단하게 지휘자를 부를 테니까 시간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잠깐 스톱해 주시고 마이크를 빨리 뒤에 주세요. 왜냐하면 나오시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마이크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앞으로 계속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요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나승민 대령 일어나 보세요.

귀하는 계엄령 전문가지요?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2017년 문건 작성자지요? 2017년 문건 작성자예요, 아니예요?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2017년 작성자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예요?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예.

○박선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포고령 등, 계약직 두 번 연속 연임하면서 예외적으로 방첩사에서 여인형 보좌하면서 쿠데타 준비했지요?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저는 신원조사 업무만 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앉으세요.

끊어 주십시오.

그다음, 문상호 사령관은 나오세요.

문 사령관, 국회 정보위에서 휴민트 조직 다 깨져 가지고 정보사령부 세우라고 인력이고 예산이고 다 지원해 줄 테니 거기에 집중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래요? 지금 귀하가 보낸 정보사 계획처장 이름 뭐예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제한됩니다.

○박선원 위원 고동희 맞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탈취하는 행위를 시킨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거지요, 문 사령관이?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저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고 복귀해라……

○박선원 위원 그래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했고 각 주요 서버마다 이것은 사전투표용이다, 저것은 선거인명부다 다 찍어서 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이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것은 사실이랑 다릅니다.

○박선원 위원 사령관, 보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고동희가 찍은 그 사진은 누구에게 전송됐습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제가 받았고 제가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랬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런데 일단 목적은……

○박선원 위원 됐어요.

그러면 속초에서 HID 7명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속초에서 7명이 온 것은 사실이랑 다릅니다.

○박선원 위원 100여단은 누가 보냈어요? 대기 누가 시켰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제가 장관님께 임무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지시했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예.

○박선원 위원 감청팀 누구누구 대기시켰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감청 기능 자체가 저희 사령부에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지 마세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사실입니다.

○박선원 위원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오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박안수 장군, 7공수·13공수 누가 동원 대기시켰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모릅니다.

○박선원 위원 예?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사실을 모릅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꼭 사령관, 누가 대기시켰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것은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KJCCS를 통해서 유선 지시받고 한 거예요? KJCCS 시스템으로 지시받고 한 거예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박선원 위원 KJCCS로 내려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의 지시 아닙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지통실에서 나온 그 지시를 사령관도 받고 각 공수여단장도 거의 동시에 받았지요? 그래서 사령관이 7공수·13공수 대기시켰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진팔 합참차장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박선원 위원 확인하세요.

박안수 장군, 이번에 합참 지휘통제실을 점령한 것은 소위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은 국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막아야 되는 거고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지 않는 것은 대북 억제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통실이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장악됐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부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한 층 밑의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몇 층에 계셨어요, 4층?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4층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합참의장은 그때 몇 층에 있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3층에 계셨습니다.

○박선원 위원 합참차장 몇 층에 있었어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4층에 있었습니다. 지하 4층입니다.

○박선원 위원 지하 4층 그러니까 계엄사령관하고 같이 있었던 거지요?

○위원장 성일종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특전사에서 헬기, 특수항공전단에서 뛰어왔을 때 그것 운항 허가 막지 말라고 한 게 누구예요? 정진팔 장군 아니예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그 지하 4층은 그 당시에는 어떤……

○박선원 위원 합참차장!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계엄부사령관이 공작사에 지시해 가지고, 헬기 오는 것 막지 말라고 공작사에 지시한 것 아니예요?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전혀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전혀 아닙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당시에 계엄 상황실은 전화도 어떤 사무 기구도 없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알겠어요. 앉으세요. 오후에 계속 추가 질문할 테니까요.

박안수 장군, 계엄사령관이 되면서 몇 명 불렀어요, 계룡대에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것 때문에 불려간 것은 아니고……

○박선원 위원 몇 명 부르셨냐고, 불러 올리셨냐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한 명 같이 왔습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10시에 불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4명.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4명 안 왔습니다.

○박선원 위원 제가 지금 제보센터하고 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공개 수배하고 있어요. 저희 민주당에 제보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반란제보센터, 제가 센터장입니다.

박안수 장군, 올해 3월부터 이 쿠데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모르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박선원 위원 군 내에 헌법과 국헌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속죄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함으로써 이후 있을 형사적 과정에서 처리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알겠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다시 보여 드릴게요. 군형법상 반란죄 제5조 다시 읽어 보세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할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말씀하시면 이미 늦어요. 꼭 사령관 마찬가지예요. 수사기관에 가서 대통령 두 번째 말이 뭐였다, 이미 늦는 것입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광종군 사령관님 일어나 주시지요.

어제 검찰 특수본 소환 조사받으셨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군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지금부터 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박범계 위원이 말하는 데 있어서, 언론 보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박범계 위원의 질문에 한 번 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총 두 번 전화했다고 답하셨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군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군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 세 번 전화했지요? 답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총 세 번 전화하셨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군 두 번입니다.

○조국 위원 세 번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군 세 번째는 제가 통화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화한 것은 두 번입니다.

○조국 위원 어제 특수본 출석하실 때 자술서 제출하셨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광종군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자술서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데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광 사령관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지요?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지요? 광 사령관님의 답을 묻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당이 지금 검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내란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매우 의심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 출신입니다.

어제 곽 사령관한테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검찰 특수본 검사 질문이 윤을 중심으로 묻지 않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곽 사령관한테 했어요. 답은 묻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한 것 맞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맞습니다.

○**조국 위원** 다음 법사위 등에서 이것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저는 지금 검찰의 특수수사본부장 포함해서 그 본부장이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현대고등학교, 서울 법대 2년 후배란 것을 알고 말씀드렸고, 박 본부장의 아버지와 한동훈의 장인 사이가 막역한 사이라는 얘기를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어제 질문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오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현행 계엄법에 따르게 되면 계엄은 누가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통령으로 지시받은 보안사……

○**조국 위원**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계엄법 6조상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언론 보도 또는 검찰에 들어가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아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모르겠습니다.

○**조국 위원**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하고, 진술도 검찰에서 했고요, 이번 특별수사본부에. 언론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가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용현 중심으로 하고 윤석열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상, 계엄법상 6조에 대통령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돼 있고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 안에 있는 내란 특수본 수사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확인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차관 안 계시니까, 지난번 회의에서 차관이 뭐라 그랬냐 하면 국방부 내에서 계엄 얘기가 되고 난 뒤에 박안수 총장에게 포고령을 전달했는데 ‘법률 검토를 마쳤다’라고 말했다고 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법적 검토……

○**조국 위원** 법률 검토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조국 위원** 홍창식 법무관리관 여기 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조국 위원** 일어서 보세요.

홍창식 법무관리관, 들어오기 전에 대륙아주 출신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맞습니다.

○**조국 위원** 대륙아주에서 김용현 장관과 잘 알고 계셨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잘 알고 정도는 아닙니다.

○조국 위원 알고 계셨지요, 그 안에서 같이 근무하셨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김용현 전 장관 인사 추천으로 법무관리관 되셨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그것은 아닙니다.

○조국 위원 그렇다면 이때 법률 검토하셨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위원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저는 모릅니다.

○조국 위원 어떻게 모릅니까? 장관이 박안수 총장에게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는데 국방부 조직 안에서 이 법률 검토를 맡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관리관 아닙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저는 알지 못합니다.

○조국 위원 알지 못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예,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누가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본인이 아니라면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아마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조국 위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을 수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일어나 보세요.

언론 보도에 났습시다마는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피체포 의원들을 과천 방첩사 지하 구금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그런 사실 없습니다.

○조국 위원 본인이 못 들었다는 것 말고, 그것은 알고 있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모릅니다.

○조국 위원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모릅니다.

○조국 위원 언론 보도 안 봅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언론 보도에 난 것은……

○조국 위원 언론 보도에 난 것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기부 1차장한테 지시했고 그 내용을 현재 경찰청장도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 것을 못 들었어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언론 보도 못 봤습니다.

○조국 위원 그래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조국 위원 좋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안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 있는 구금시설 과천 지하에 있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구금시설 과천 지하에 없습니다.

○조국 위원 신문시설 있지요? 수사단장, 안보수사실장.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수사단에……

○조국 위원 구금시설이 있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구금시설 없습니다.

○조국 위원 없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조국 위원 어디에 수용하려고 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저는 모릅니다.

○조국 위원 저를 또는 이재명 대표를 어디 넣으려고 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듣지 못했습니다.

○조국 위원 그러면 모른다니까 빼고요.

그러면 707특임단장.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특임단장입니다.

○조국 위원 용산 앞에서의 기자회견 봤습니다. 저는 그것에 쫓았습니다.

특임단장께서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체포 지시받으셨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는 국회의원 체포 관련된 지시는 없었습니다. 봉쇄 관련 지시만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국 위원 시간 끝난 겁니까?

○위원장 성일종 예, 오늘은……

○조국 위원 누가 직접 체포를 담당한 사람인지 알려 주세요. 지시는 내려왔습니다. 안기부 1차장도 인정했고 경찰청장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룰상 구금시설 먼저 확보합니다. 아까 방첩사에서 없다고 그랬어요. 707일지 어디일지 모르겠는데 들어왔어요. 수갑까지 갖고 왔어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어디에 넣을 겁니까? 보통 시설을 비웁니다. 비우게 되어 있어요. 모르십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위원님, 제가 받은 임무는 건물 봉쇄였고 저희가 평시에 가지고 가는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은 맞습니다. 그것은 대테러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봉쇄 상황에서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했습니다.

○조국 위원 김현태 대령이 아니시라면, 체포조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체포조에 게 누구누구누구라고 임무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수순상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데리고 가면 방첩사 지하로 넣거나, 과천에 넣으려고 했습니까? 동부구치소 비웠다는데 동부구치소의 단독 방 여러 개 비우라고 했다던데 거기 넣으려고 했습니까? 이 중에 누가 합니까? 지금 김 대령한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 알려 주세요. 지금 차관 자리 비웠는데, 들어와서 국회의원 체포를 담당할 부대가 누구고 국회의원을 잡아 가지고 어디에 넣으려고 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구금하려고 했는가, 그 구금을 해서 뭘 하려고 했는가가 확인돼야 됩니다. 방첩사에 안 넣는



다고 했지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첩사에 안 넣는다면 어딘지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국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묻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허영 위원 손을 들었는데 저기서.

○박선원 위원 손 드신 분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성일종 손 드신 분 마이크 좀 드리세요.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 준장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 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국 위원 받았지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예,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나중에 진술하겠습니다.

○조국 위원 구금 시설 알려 줘야 됩니다. 아까 구금 시설 없다고 그랬어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아닙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병커 안에 구금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병커를 직접 지시를 받고……

○조국 위원 알겠습니다. 직무대리, 제가 형식적으로 그 안의 시설을 이름 붙여서 감옥 이라고 붙어 있나 없나 그걸 물었습니까? 구금하려고 했잖아요. 그 B-1 병커에 넣으려 고 했잖아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방첩사 구금 시설은 없습니다.

○조국 위원 지금 저하고 말장난합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방첩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국 위원 앉으세요.

하나하나 다시 물을 테니까…… 지금 답 정확히 하셨어요. 그대로 진실을 말씀하셨어 요. 하나하나 봅시다, 이제.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질의를 가능하면 제가 사회에 집중을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차관이 아직 국무회의 관계로 오지 못해서 물어보지를 못하고요.

국군의무사령관님 나오셨지요?

○국군의무사령관 하범만 예.

○위원장 성일종 이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보도내용을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군의무사령관 하범만 국군의무사령관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난 12월 2일 전시 환자 분류 훈련을 실시했잖아요?

○국군의무사령관 하범만 예, 국군양주병원 1개의 병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 훈련이 사전에 예정되었던 훈련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엄을 인지하고

지시받거나 해서 한 훈련이었습니까?

○국군의무사령관 하범만 사전에 계획된 훈련이었고 그 훈련 한 4주 전에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공문으로 훈련 통제계획이 내려갔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것은 계엄하고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군의 일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군의무사령관 하범만 예, 국군양주병원장 교체계획이 연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 재임 기간 중에 전술훈련 평가를 1회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12월 11일, 12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자체적으로 한 일주일 전에 자체적으로 훈련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정정 보도자료를 내셨나요?

○국군의무사령관 하범만 정정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 걸 바로바로 해 주세요.

○국군의무사령관 하범만 예, 국방부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오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그 혼란의 피해는 다 국민이 보잖아요?

○국군의무사령관 하범만 예.

○위원장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없는 것은, 틀렸을 때는…… 배석하신 모든 관계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건 있는 대로 얘기를 하시고 없는 건, 잘못된 보도는 국민한테 혼란을 주는데 때로는 그 혼란이 굉장히 사회 비용을 많이 지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즉각 즉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바로잡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오전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부승찬 위원 참고인 출석……

○위원장 성일종 그건 협의를 좀 하시지요.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부승찬 위원 예, 한 명.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 부를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56조에 따라 본회의가 진행 중일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가 정회 중이거나 국회의장께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상임위원회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한테 상임위를 계속 열 수 있도록 공문은 이미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우리가 회의 진행을, 제가 의사진행발언……

○박범계 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1분이 아니고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2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점심을 먹고 여기 계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VIP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를 해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국회의원들을 말합니다—밖으로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안 됐다, 아직’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은 이렇게 되면, 문을 부수고 깨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고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동 중 지시시키고 ‘현 위치 진입 금지. 가만히 있어라,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인 12월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만 공범이 될까 봐 차마 여단장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12월 1일 사전에 알았더라는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공익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가 돼서 곽종근 사령관에게 질의를 하고 싶었으나 질의 순서가 되지 않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에 대해서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곽종근 사령관에게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당파를 떠나서 오늘의 회의가 진실 규명을 위한 그런 회의니까 적극적인 공익신고조치나 또는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보호조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오늘 회의는 진실에 접근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질의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주로 사회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제가 안 하고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부족하면 저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배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군 관계자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양심으로부터의 증언과 또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승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부승찬 위원 지금 박범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관계나, 점심시간에 사령관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짧게나마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는 건 어떨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그건 모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승찬 위원님이 그 말씀 주셨는데 어차피 유용원 위원님부터 조국 위원님 이렇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추미애 위원님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 중에 임종득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은 어쨌든 회의를 무리 없이 잘 이끌어 가는 게 원칙입니다. 임종득 위원님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또 속기록을 제가 챙겨서 봤습니다.

임종득 위원님께서 ‘우리 지휘관들이 국방부나 육군본부의 허가 없이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하는 것들이 규정에 맞지 않다’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박선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는 와중에 ‘그게 그러면 증거인멸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회의가 매끄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선원 위원님께서 ‘꼭 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임종득 위원님이 ‘규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박선원 위원님께서 ‘당신도 안보실 1차장 할 때 이 내란음모에 가담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 질의 과정에 끼어든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듣는 의미에 있어서는 안보실에서 근무하셨던 임종득 위원님이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조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없게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저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박선원 위원님께서 아마 여러 상황적 측면에서 볼 때 화가 나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선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상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지요.

○박선원 위원 솔직히 할 말 없습니다. 지금 안보실의 김태효, 신원식,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임 위원이 야당 위원들하고는 인식이 달라요. 저희는 목숨 걸고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여당 위원이면서 군 출신의 안보실 차장이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국회 본회의장에 그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성일종 일본에 있었잖아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우리는 옆구리에 대검이 찔릴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에요. 총알이 날아오면 총알 맞을 각오하고 죽어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죽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있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잘못 만나 가지고, 국방장관 이상한 사람 만나 가지고 군 동원한 특전사령관과 그 예하 공수여단장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수방사도 크게 다

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법상 내란에 연루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언론을 접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임대 단장도 언론을 접촉할 수 있어요.

○추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임종득 위원이 규정을 거론하면서 마치 말을 막는 것처럼 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론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 규정을 이야기하고 마치 대외 언론 접촉할 때는…… 지금 누구한테 신고하라는 겁니까? 피의자들에게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사전에 계엄 논의나 쿠데타에 가담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이 임종득 위원 본인의 어떤 명예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점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박선원 위원 규정 이야기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정리하면 현재 이 계엄에 관련돼 있던 군인들은 현재의 군에 있는 규정이나 내규 아니면 법에 의해서 언론에 인터뷰하거나 할 때에 차관님, 육군본부든 국방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영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 부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선원 위원 대통령이 규정을 안 지키는데 무슨 규정을 이야기해요, 지금?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통령이 규정 안 지키고 한 것은 그것대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할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있는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회의 진행상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회의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종득 위원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아니,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저한테는 기회를 하나도 안 주고 대상자에게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박선원 위원님 말씀 저 정도 하셨으면 임 위원님께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사과를 당연히 받아야지요. 저도 발언할 기회는 주셔야지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아까 끝마무리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한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임종득 위원 지금 하신 말씀 전체 내용 중에 보면 오해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했는데 저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대방한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장한테 좀 회의 진행을 맡겨 주시고 박선원 위원님이 마지막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첨언해서 섭섭한 부분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록이 좀 필요하니까 임 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하고 마무리하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2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군인복무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군인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계엄에 참여했던 주요 지휘관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하고 나와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예비역들이나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관한 부분을 참모총장에게 묻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 발언을 방해하고 또 말하는 내용을 보면 ‘왜 증거인멸을 조장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조장했습니까? 두 번째, ‘당신도 안보 1차장 할 때 이 내란음모에 가담했어, 안 했어!’. 제가 안보 1차장 언제 했습니까? 1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때 벌써 내란음모를 했어요? 뭘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제 질문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정당한 발언 기회를 발휘하고 있는데, 발언 기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는데 입틀막 하는 것이고요 협박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위원장님, 이 상황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위원장 성일종**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임종득 위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해요, 하라고. 그러니까 속 푸세요, 풀어. 그것은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내가 말한 것에서 전혀 문제는 없어요.

○**임종득 위원** 그 말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과 군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박선원 위원**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게 무책임해요?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임 위원이나 박 위원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말이 약간씩 상이한데요 어쨌든 박 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바란다는 이런 내용으로 항간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소하고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예. 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유감의 뜻을 표하셨고, 저는 박선원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데 끼어서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은 다 유념해 주시고 다른 위원 발언할 때 절대로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걸 매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선원 위원님께서…… 아까 임종득 위원님 불렀고 또 박선원 위원 함께 불렀습니다, 부승찬 위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유감을 표했으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하고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특전사령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에서 빼 주세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유용원 위원** 아까 제가 윤 대통령님과 전화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게 없느냐고 여쭙았을 때는 말씀 안 하시더니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추가 통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대통령께서 두 번째 통화 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원 위원** 예.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분명히 오전에는 제가 전화 거신 것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는 대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예하부대에 지시를 해서 투입한 이 사항에 대해서 오로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쏘서 들어가야 되나, 전기를 끊어서 못 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것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들어간 작전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이행해야 되는,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마라’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01시 01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2분 정도 뒤에 그 상황을 인식했는데 01시 09분부로 국회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들에 대한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탈시킨 이후에 부대 복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제가 지휘 조치하면서 판단하고 조치했던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보고드리지 않았고 철수할 때 전임 국방부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철수 지시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를 한 시간이 정확히 언제쯤입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00시 30분

부터 00시 40분 그 어간대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궐 사령관님은 시간이 00시 30분과 40분 사이라고 그랬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궐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핸드폰에 시간이 찍혔을 텐데 확인을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궐종근 그 핸드폰, 비화폰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다 반납해서 특전사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궐 사령관의 폰도 비화폰이고 대통령이 쓴 폰도 비화폰이었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궐종근 그렇습니다. 작전 당시에는 다 비화폰으로만 통화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며칠간 비화폰을 들고 있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궐종근 제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장 성일종 아니, 직무가 되기 전까지 비화폰을 들고 있었던 기간이 언제였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궐종근 앞의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번……

○위원장 성일종 비화폰을 사용했잖아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궐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 비화폰을 언제까지 갖고 있었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궐종근 직무 정지될 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 사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통화한 시간도 체크를 안 했어요? 일지를 다 썼을 것 아니에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궐종근 그래서 00시 30분부터 40분 그 사이인데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다 그대로 두고 그대로 다 빠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른 위원님들 궐 사령관한테 질의할 분이 있으시지요? 조국 위원님 또 추미애 위원님 있으시지요?

○조국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들어가시지 마시고 거기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궐 사령관님, 아까 오전 질문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 두 번 했다고 하시고 저는 세 번이 아니냐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궐종근 예.

○조국 위원 그런데 첫 번째 통화는 707 어디로 이동 중인가 묻는 질문, 통화였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궐종근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답하셨던 ‘진입하라’라는 취지의 지시였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궐종근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마치고 난 뒤에 세 번째 통화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궐종근 정말로 없고 제가 지금……

○조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황 종료 후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장관과의 통화 속에서, 두 사람 어느 쪽이든 간에 계엄 발발 나고 난 어느 시기든 상관 없습니다마는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제가 지금 말하는 것 잘 들으시고 답하셔야 됩니다—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조국 위원 이 단어 사용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님, 대통령이 새벽 0시경에 국회 상황이 어떤가 전화했었지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현재 국회 상황 문의했지요?

시간 끊어 주십시오. 지금 답이……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통화하신 것 맞지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예, 통화했습니다.

○조국 위원 그때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 외에—제가 지금 묻는 단어입니다—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총, 발포, 장갑차, 공포탄, 진압 이런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제가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긴박해서 사실 기억이 다 나지 않습니다.

○조국 위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예.

○조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곽 사령관님, 정신이 없으셨을 건데 윤 대통령이 고향을 치듯이 얘기를 했을 건데요 지금 진압하기 어렵다, 들어가기 어렵다 했을 때—사령관께서 의견을 냈을 때입니다—그때 윤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했던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2차 때 말씀하실 때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조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첩사,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김대우 준장님 계시지요? 아까 답변 잘해 주셨는데, 아까 오전 답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말하기를 여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하면서 정치인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셨지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예, 정확히 지시한 사항은 저를 직접 호출해서 상황실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 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조국 위원 받아 적으셨고.

알겠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그리고 체포하라는 위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조국 위원 수방사 지하로 이동시켜라 하셨고 B-1 명커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 여인형 사령관이 불러 준 정치인 명단이 14명이지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예, 맞습니다.

○조국 위원 14명이지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맞습니다.

○조국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는 14명이 다 안 나왔습니다만 총 14명이지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예, 맞습니다.

○조국 위원 지금 받아 적은 명단 수첩 또는 쪽지, 메모 어디 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어제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 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조국 위원 지금 검찰 산하 내란 특수본에서 14명의 명단 가지고 있네요? 언론보도에 알려진 것 외에, 지금 언론보도에 알려진 것은 14명이 아닌데……

단장님은 그 기록 기억하시지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정확하게 한 명 한 명을 기억할 수 없지만 1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 위원 맞지요?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예.

○조국 위원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님, 이진우 사령관님은 누구로부터건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받거나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없습니다.

○조국 위원 그런데 지금 수사단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정치인 14명을 체포해서 남태령 수방사 밑에 있는 B-1 병커에 넣어라라고 여인형 사령관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14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방사 산하에 있는 B-1 병커에 넣기로 지시를 했는데 수방사는 왜 모릅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것은 저희랑 그것에 대해서……

○조국 위원 아무 상의 없이 그냥 한 겁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그러면 수방사령관님은 그걸 전혀 몰랐습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14명의 정치인 체포를 전혀 몰랐습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그런데 왜 B-1 병커 저기에 지시합니까, B-1 병커에 넣으라고?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뭔가 큰 거사를 하는 줄로 아셨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제가 질문을 이해 못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12월 3일 국회에 진입할 때 뭔가 진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겠지요? 큰

뜻을 가지고 어떤 큰일을 한다, 거사를 벌인다 그런 결심 없이는 그렇게 군 병력을 국회에 들어가라고 지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뜻이 있었겠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저희는 최종 상태 목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경황 없이 갔는데 국회에 간 것이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만 부여받고 갔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이보세요. 아까 사실대로 얘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회가 회의 중인데, 어떤 곳입니까? 국회의 경계를 강화하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가 테러로 접수가 됐다든지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든지 느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건 아니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아닌 상태에서 시민들이 에워싸고 있고 한데 어떻게 헬기로 바로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요, 헬기가 선회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했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큰 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지요.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빠른 말씨로 거칠었습니까? 대통령이 우왕좌왕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렇지 않습니다.

○추미애 위원 ‘의결정족수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를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 다 끄집어내라 얘기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럴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저는 그냥 그 말 듣고 ‘알겠습니다’만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이 상황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아까 12월 1일쯤 알았다고 하셨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예.

○추미애 위원 12월 1일 날 안 사실은 뭘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까지는 12월 3일 TV를 보고 비상계엄령 상황을 인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곳 해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12월 1일 일요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제가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추미애 위원 유선 비화폰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전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그걸 머릿속으로만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고 있다가 차마 그 말을 우리 예하 여단장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예하 여단장들도 혹시나 이미 그 상황을 미리 안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여단장들한테는 당일 날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비상계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 거기에 염두 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상황 인식이 더 컸습니다.

○추미애 위원 확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외곽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주변의 출입구 이런 것들을 병력으로 딱 확보를 해서 그 건물 자체에 인원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지 못하도록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곳,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국회, 선관위 셋, 민주당사, 여론조사곳 이렇게 여섯 군데였습니다.

○추미애 위원 선관위 셋.

○안규백 위원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안규백 위원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거기가 선관위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추가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박 사령관님, 혹시 놓칠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잠깐 더 묻겠는데……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휘 명령을 받았고?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위원장 성일종 그때 ‘현장 지휘관들과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때 현장 지휘관들이 몇 명이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707특임단장하고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한 분입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707특임단장하고 주로 논의했고, 그 당시에……

○위원장 성일종 한 사람하고, 707특임단장 한 사람하고만 얘기한 거예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현장 지휘관은 1공수여단장하고 707특임단장 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707하고만 얘기했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707하고 주로 논의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707단장, 이것 확인해 주세요.

707단장.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위원장 성일종 맞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꼭 사령관이 어떠한 지시를 내렸습니까?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한테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전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걸로 인식을 하고 현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건 무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리수 두시는 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건 전화상입니까, 아니면 대면이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시를 받은 것은……

○위원장 성일종 전화 지시를, 꼭 사령관이 지시를 상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의한 방법은 전화상이었어요, 대면이었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전화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전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707 단장은 그때 위치가 어디였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는 그전에 이미 창문으로 들어와서 1층 현관에서 한번 진입을 시도하다가 소화기를 맞고 후퇴를 하고 그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꼭 사령관 위치는 어디였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저는 특수전사령부 전투통제실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게, 아까 여섯 군데라 그랬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여섯 군데인데 그 여섯 군데 중 처음 나온 게 민주당 당사가 나왔거든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것까지도 짚고 가는 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여섯 군데가 어디였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국회, 선관위 3개,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이렇게 여섯 군데였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됐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드론작전사령관님 준비하세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입니다.

○임종득 위원 오전 질의 시에 드론작전사령부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평양 무인기 사건과 연계된 증거 인멸 시도라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임종득 위원 이해가 좀 안 돼요. 자세히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1드론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자연 발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드론까지 손상을 입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드론 손상은 없습니다. 단지 부수기재, 발사대 이 정도가 좀 손상을 입었고, 아까 김병주 위원께서 국방조사본부장에게 현장 감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한 15일 내지 한 달 이 정도 걸린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증거 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십시오.

정보사령관님, 속초에서 7명이 파견되는 등 HID를 활용한 체포조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운영 안 했습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집은 일부 했습니다. 하나 그런 특정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팀원 중에 극소수 일부로 포함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임종득 위원 선관위 출동과 관련해서 오전에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출동 인원이나 그때 당시 지시한 내용, 경과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첫날 발표되기 이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임종득 위원 출동한 날, 당일 날.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지시를 받았고 제가 오전에 팀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팀장 포함해서 10명으로 팀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때 17시경에 ‘오늘 야간 21시경에 과천 정부청사 일대에서 대기를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저희가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아닙니다.

그리고 발표가 되기 임박해서 추가적으로 속보가 발표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발표가 되고 나면 선관위로 이동을 해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실제로 들어갔잖아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예, 실제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임종득 위원 한 게 뭐예요? 한 일이 뭐냐고.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산실 위치를 거기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대기를 하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를 해 주고 복귀하는 것이 저희 임무였고, 대기하다가 계엄령이 해제가 되고 나서 추가적인 아무런 지시가 없어서 제가 복귀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기까지가 다입니다.

○**임종득 위원** 언론에 보면 박스를 큰 걸 들고 나오는 사진도 있었고 동영상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게 뭐니까?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저는 그거를 보지 못했고 실제로 저희가 전산실에 들어가서 뭐를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뭐를 만지거나 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정보사 말고 다른 인원들이 가지고 나온 건가요, 그 동영상이나 사진은?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임종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모총장님, 12월 3일과 4일에 총장님의 동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12월 3일 오전에는 32사 지역에 신병교육과 관련된 데 다녀왔고 오후에 육사 교장 이취임식을 헬기로 가서 주관을 하고 이어서 계획돼 있던 현안 토의를 장관님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참모들하고 식사를 하고 퇴근했다가 장관님 지시하신 시간에, 21시 40분까지 오라고 말씀하셔서 40분까지 대기하고 있었고 이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3층 지휘통제실로 갔고 3층 지휘통제실에서 담화문을 보기 시작했고 이어서 장관님이 전군주요지휘관 하셨고 포고령을 수령해서 조치하고 얼른 상황실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시 또 1층으로 내려가서 위치가 다른 한 층, 다른 위치인 4층에 내려가서 상황실 구성을 위해서 조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포고령 하달하는 연락이 와서 다시 또 3층으로, 이게 태그가 제가 소속이라 안 되기 때문에 막 찾아 올라가서 일련의 조치를 위해서 포고령을 하달하고 다시 또 내려와서 왔는데 그때 몇 명이 있어서 거기 전문가 한 분이 장관님의 지휘 감독의 임무에 대한 건의를 드려야, ‘위임을 받았느냐, 확인해야 된다’ 해서 다시 또 올라가서 ‘장관님, 위임 받으셨습니까?’ 여쭙보고 위임 받으셨다고 그래서 다시 내려왔고 그러고는 거기 상황실 구성에 이런저런 조치를 하는 과정에 합참에 문자 공지를 해서 들어오게, 문자 공지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문자 공지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거의 난 것 같습니다. 아, 문자 공지하고 상황실 조성하다가 이런저런…… 하다가 그다음에 해제가 되어서 또 다른, 해제가 되었으니까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 되니까 또 다시 올라갔는데 그때쯤에 다음 조치를 해야 되니까 장관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보러 갔는데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대통령님 들어오시는 데,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런 정도입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박종근 사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안규백 위원** 계엄을 실제 알았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최종 임무 받은 것이 12월 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최초 계엄의 느낌, 기미를 본인이 인지한 지가 언제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것이 최종이고 그전에는 계엄이라기보다 그냥 조금 조금의 대화 내용들은 많이 있었는데 계엄으로서의 상황을 판단해서 딱 임무를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전화로, 사실 왔다갔다 하면서도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 시점이 12월 1일이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누구로부터 알게 됐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전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화하면서 알았습니다.

○**안규백 위원**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도 동시에 같이 알고 있었겠네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서로 간에 말 맞추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방사령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저는 당일 날 알았습니다. 12월 3일 날 알았고 저희는 그전에 서울 자체가 쓰레기 오물풍선 부양 문제랑 그다음에 저희의 가장 큰 임무가 소형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대응훈련이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매사에 긴장 상태로 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래도 그나마 양심적인 사령관과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유혈사태를 막고 민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앞으십시오.

김대우 수사단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체포자 명단이 14명으로 23시 30분경에 하달을 받고 00시 25분에 체포조가 출동을 했지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시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안규백 위원** 대대에 편성해서 했지요? 그 인원들이, 그분들이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정청래 의원, 양정철, 박찬대, 조해주, 이학영, 양경수, 김어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이상 14명 중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제가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고 14명으로만 제가 확실히 기억했고 지금 방첩사에서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 김대우 수사단장은 3일 당일 날 저녁에 어디 계셨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당일 날 집에서 좀 일찍 취침을 하고 있었는데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령관님이 찾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들어가서, 사령관님 집무실에 계신다고 해서 들어가니까 그때 대통령님 담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기 알려진 내용이, 수사단장으로서의 폭언과 폭설과 욕설을 했대 이긴 좀 다른 내용입니까?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저는 그 당시뿐만 아니고 제 평생 폭언이나 구타나 욕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수사단장 언행과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한 번도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상호 정보사령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간 좀……

○**위원장 성일종** 중지시켜 주세요. 중지하는 시간 동안에 몇 초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인정했는데 정보사는 선관위 공무원 또는 체포, 유사한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선관위 인원들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공무원들 체포를 지시 받은 바가 없습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먼저 진술한 바와 같이 전산실 관련된 임무를 받았고 그다음에 다음 날 추가 임무가 있어서 인원을 소집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여인형 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입을 맞추고 이런 거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관되게 TV 자막을 보고 알았다, 특히 육군총장은 이미 장관하고 4시에 독대를 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TV 보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걸 알았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예, 답변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 위원** 총장이 조금 전에 말했던, 약간 허술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행적, 일정과 이게 상당히 충돌되고 배치돼요. 또 12월 5일 날 발언했던 그 내용하고도 상당히 다릅니다. 당일 날 일정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두세 번 일정이, 몇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규백 위원** 장관하고 했던 어떤 내용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

그 일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뻔한 내용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일날 일정을 육사 졸업식, 이취임식만 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그래서 제가 야까 좀 놀라서 생각을, 듣는 중에 마이크가 꺼지고 종료가 되었는데 당일날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말씀 주로 하실 때에도 제가 현안 업무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녁 시간도 말씀드렸고 또 두 분에게도 그렇게……

○**안규백 위원** 장관하고 현안이 있었다고 얘기했다고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장관이라는 단어는 안 넣었지만 오후에 현안 업무가 있었고 녹취록을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오후에 현안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게……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장관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22시에 김용현 장관을 만났다는 대답이 맞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현안 업무가 있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후에도 했고……

○**안규백 위원** 그러면 그 현안 내용이 뭘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게 네 건인데……

○**안규백 위원**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할 테니 21시 40분까지 국방부 주변에 대기해라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21시 40분까지 와 있어라 이런 말씀했었습니다. 그때 네 건 보고가……

○**위원장 성일종** 추가질의 시간에 이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공식적인 병력 투입 자료에 의하면 총 685명인데요. 수방사 예하부대 중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그래서 총 211명, 이 중에서 국회 울타리 내로 진입한 인원은 48명 그리고 1공수특전여단 277명, 707특수임무단 197명.

이 중에서 707특임단장, 국회 본관 내에 투입된 인력이 몇 명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창문을 넘은 것은 14~15명으로……

○**위원장 성일종** 마이크 드리세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랑 방을 나가서 창문을 넘은 것은, 저도 넘다 보니까 인원을 파악하지 않았지만 14~15명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남아서……

○**허영 위원** 15명으로 제출했습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12명입니다. 두세 명은 제가 경계식으로 남겨 두고 들어갔습니다.

○**허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님, 그때 총 211명이 투입됐어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국회 울타리로 진입한 48명의 임무는 뭘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허영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방사의 기본 임무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허영 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예.

○허영 위원 주된 임무가 뭐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저희는 국회를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총 72개의 국가중요시설을 유사시에 방호하고 또 보호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국회를 방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됐다는 말입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렇습니다. 처음의 임무는……

○박범계 위원 좀 너무하잖아.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이걸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위원장 성일종 아니, 다른 위원님들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음에 기회 다 드릴 겁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잖아.

○위원장 성일종 아니, 안 위원님,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시고.

○허영 위원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방사가 누구 지시로 국회에 투입됐습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국방부장관입니다.

○허영 위원 국방부장관이 국회 방호, 보호하라고 지시를 투입한 겁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출동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국회로 출동하라고 하셨습니다.

○허영 위원 지금껏 국방부장관이 계엄을 주도하고 대통령을 뛰어넘어서 본인이 군 병력 투입에 대한 온갖 지시를 내렸는데 그게 국회 방호와 보호를 위해서 투입했다고 그렇게 보호하고 옹호하는 겁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허영 위원 앉으세요.

김대우 수사단장님, 이 외에 방첩수사단이 국회 체포조로 사복 체포조가 투입됐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49명이 출발했습니다.

○허영 위원 이거는 685명 외의 45명이지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영 위원 45명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49명입니다.

○허영 위원 49명입니까? 사복 체포조 49명이 투입된 거지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정보사령관, 지금 선관위에 10명의 팀을 투입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8명입니다.

○허영 위원 정식으로 8명입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예.

○허영 위원 8명. 그러면 685명 내에 방첩수사단 체포조 49명과 그다음에 정보사령부에서 8명 팀을 이뤄서 선관위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허영 위원 지금 위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 토의하기로 전국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허영 위원 위임의 내용만, 확인된 위임의 내용.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지휘·감독에 관한 위임입니다.

○허영 위원 지휘·감독?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허영 위원 뭘 지휘·감독하는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과 관련된 지휘·감독입니다.

○허영 위원 그게 계엄법상이나 계엄 절차상이나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조항은 제가 모르겠고 그때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저에게……

○허영 위원 계엄사령관의 임무가 버젓이 있는데 국방부장관이 배제돼야 된다는 사안들을 몰랐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몰랐습니다.

○허영 위원 그 위임이 위법적인 명령 체계라는 것들을 몰랐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몰랐고 내려가니까 그걸 건의를 해서 토의해서 올라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허영 위원 계엄사령관, 그리고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포고령 공지했습니다.

○허영 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공고의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공지하고 나중에 지통실에 아니, 4층 상황실에 있는데 누가 예하부대……

○허영 위원 국무위원이 다 부서하고 이런 계엄 포고에 대한 공고를, 부서가 명기된 공고를 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은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상황실이 구성이 안 돼 있어서 확인하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허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오늘 오전 질의가 끝나고 나서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로부터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승찬 위원님도 공군사관학교 졸업하셨지요?

○부승찬 위원 (고개를 끄덕임)

○**한기호 위원** 우리 선후배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육이 잘못되었다. 물론 사관학교에서 계엄을 하라고 누가 교육을 하겠습니까? 졸업한 장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걸로 인해서 사관학교 자체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봐도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사 선후배들이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승찬 위원님께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물론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육군총장 그리고 3명의 사령관 그리고 여단장, 많은 분들이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사관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전시를 전제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정말 죽음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데 평시에 이것이 적용된다는 건 안 맞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이제 과오가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인복무기본법에도 명령을 수명했을 경우 정상적인 채널이 아닌 경우는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방사령관은 직속 상관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기본적으로는 육군참모총장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러나 작전과 관련해서는 합참의장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특전사령관은 누구입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기본적으로 평상시 지휘 관계는 수방사와 동일하게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전과 관련된 사항은 합참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한기호 위원** 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명령 계통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군인복무기본법에 비정상적인 명령을 받았을 경우 즉시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사태가 막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건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것이 12월 1일 날이라고 했으면 12월 1일 날 육군총장한테 보고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작전 상황이라 그러면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했어야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나요? 왜 보고를 안 하셨지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수방사령관님, 왜 보고를 안 하셨지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저의 경우는 장관이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안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비태세를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한기호 위원** 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중립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정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계엄 계획을 검토를 해 보라. 계엄 계획을 검토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가능합니까? 그걸 사전에 알고 실제로 법무장교들한테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승찬 위원님께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모두발언으로 우리 군의 사기가 좀 저하돼 있다. 그래서 관련된 자들한테는 어떤 질문도 다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사기를 좀 고려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기호 위원님이 육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동문들의 전화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부승찬 간사님,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자들이 문제가 있지 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할 이야기 없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무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부승찬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방첩사 수사단장, B-1 병커 여 전 사령관하고 점검 나갔다는데 언제입니까?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나가라는 지시는 수사단에 있는 이 실장이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언제 나갔냐고요. 오전 질의 때 여인형 사령관과 B-1 병커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점검하러.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제가 갔다 왔다고 그때 하지 않았고, 사령관이 B-1 병커에 대해서 B-1 병커를 구급시설로 쓸 수 있는지 수사단에 있는 이 실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실장이 뒤에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서 언제예요, 그게 지시한 게?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지시한 게 담화문, 비상계엄 선포 뒤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위원님, 수방사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질의 안 했잖아요.

6463 알아요? 뒷번호 6463?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모릅니다.

○부승찬 위원 휴대폰 갖고 왔어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예.

○부승찬 위원 휴대폰에 6463 뒷번호 저장돼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체포조 가동했나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비상소집이 걸렸는데 수사관들이 한창 처음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승찬 위원 체포조 가동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그때 5명씩 빨리 출동시키라는 임무를 받고 5명씩 묶어서 차에 태워서 국회 정문 근처로 보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까 주무셨다고 그랬지요? 집에서 주무시다가 들어가 보니 사령관이 담화를 보고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예.

○부승찬 위원 담화를 보고 있었으면 미리 사령관이 급하게 찾은 거예요?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예, 비서실장 통해서 사령관님이……

○부승찬 위원 몇 시예요, 그게?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 김대우 그게 제가 들어가기 한 30분 정도 전이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0분 걸렸으면 미리 알았다는 건데, 그런데 TV를 보고 알았어요?

정보사 정보사령관, 당일 오전 10시~11시경에 알았다고 그랬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뭐를 알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승찬 위원 아니, 장관이 지시 내려온 게 오전 10시~11시.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임무 지시받았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임무 지시. 됐습니다.

특전사령관님, 12월 1일 날 알았다고 그랬지요? 임무 받은 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부승찬 위원 됐습니다.

수방사령관!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예.

○부승찬 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알았는지만 얘기하세요. 여전히 TV 보고 아신 거예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예, 그런데……

○부승찬 위원 오케이, 됐어요. TV 보고 알았다.

았으세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위원님, 제가 그때……

○부승찬 위원 아니, 담화 보고 알았다.

았으세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거 말고 다른 거, B-1 병커 관련된 얘기를 좀……

○부승찬 위원 아니, B-1 병커는 됐고요. 일단 나중에 질의할게요.

방첩사도 여전히 담화 보고 알았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담화 보고 알았다?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담화 전에 기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기미는 안다?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담화 전에……

○부승찬 위원 담화 전에 기미는 알고 있었다?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기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앉으세요.

정보사령관, HID 통상 훈련받을 때 무슨 복장으로 받으니까? 훈련복이 어떻게 돼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훈련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HID 역할이 여기 우리 민주당에서 체포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고.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예, 명확하게 아닙니다.

○부승찬 위원 뭔지 아시지요, 제 이 질문의 의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

○부승찬 위원 모르세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잘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HID 들어갈 때 뭐 입고 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어디를 들어갈 때……

○부승찬 위원 임무 수행할 때 뭐 입고 들어갑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임무에 따라 다릅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제가 공작대장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HID 갔다 왔고요. DMZ 돌파 훈련할 때 갔다 왔고요. 초소부터 인민군 복장 입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것이지요, 약간. 소요 이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앉으세요.

이게 보면 지금 수방사와 방첩사령관만 담화 보고 알았다예요. 나머지는 미리 알았고, 그렇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방사령관님, 하실 얘기 있을 것 같은데……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B-1 병커와 관련된 거는……

○부승찬 위원 아니,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질의할게요. B-1 병커 말고요.

여전히 담화를 보고,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전에, 한 30분 전에 장관님께서 전화 오셔서 상황이 위중하니 집무실로 가서 대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승찬 위원 30분 전에 대기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담화 보고 알았다?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전사령관님 마이크 드리세요.

우리 위원님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를 보면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12월 1일 날 임무를 그때 알았다 그랬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전에는 조금씩 조금씩 알았다고 그랬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전에는 그게 계엄이라는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알았다고 하는 것은 계엄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를 안 거예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냥 중요 시설, 반국가 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 위주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렇게 추상적으로 알았고?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위원장 성일종 12월 1일 날은 정확하게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정확하게 어디 어디를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 임무 지점 6개를 12월 1일 날 그때 받았냐?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계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 말씀은 듣긴 들었어도……

○위원장 성일종 듣긴 들었어도? 그게 무슨 얘기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여섯 군데에 대해서 확보와 관련된 걸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성일종 확보는 뭐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시설 확보였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시설 확보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임무가 없었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시설 확보하고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받은 임무는 그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12월 1일 날 받았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임무 수행이 이루어진 건 12월 3일이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중요한 일을 알고 있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사실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총장한테 보고를 안 해요? 그러면 12월 1일 날 듣고 특임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때 상의를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안 했습니다. 저 혼자만 머릿속으로 구상했고 그때 당시 듣고서도 설마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때 임무받을 때는 장관한테 받았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임무만 받고 누구하고도 상의를 안 했냐?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저 혼자 구상을 했고 여단장들한테는 제가 당일 날 처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장관한테는 ‘왜 이것을 점거하라고 합니까?’라고 묻거나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사령관 정도 되면 말이지 이런 중요한 임무가 부여됐는데 장관에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묻지 않고 이틀씩이나 묵혔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장관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위원장 성일종 들었을 때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고 지금 상황에서……

○위원장 성일종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이틀.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치고 정확한 임무에 6개의 시설을 확보하라고 받은 건 12월 1일이에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행동으로 옮긴 것은 12월 3일이잖아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12월 2일이에요, 3일이에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12월 3일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12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1일부터 1, 2, 3 낮까지 3일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임무를 주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계엄이구나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관한테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설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특전사령관님, 힌트로 장관이 그전에도 반국가세력 이런 것을 힌트 줬다고 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김병주 위원 반국가세력이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겠네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민주당이라고 딱 집어서 그렇게 얘기는 안 했고 반국가세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반국가세력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장관이? 척결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구체적으로 용어를 썼던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회미한데 그때 그런 유의 내용들을 대화했었던 건 기억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반국가세력, 반통일세력, 반자유세력 이런 사람들을 척결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서 특전사나 이런 부대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집어서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은 아닌데 중간 중간에 그런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미리 계엄이라든가 비상계엄을 해서 반국가세력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장관이 하고 있었다고 보여요.

정보사령관, 이쪽으로 나오세요, 잘 안 보여요.

시간 멈춰 주고요.

속초에 있는 HID가 7명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체포조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인원들은 체포조보다는 실제 사회를 혼란시키는 북한군 역할이나 또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뭘 했을 것 같아요? 임무는 안 받고 대기했잖아요, 판교 모처에서.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 선발을 10월 30일 날 상사급 이상 특공무술 뛰어난, 우수한 사람들 선발해 달라고 30일 날 누구한테 지시받았나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병주 위원** 김봉규 대령하고 정성욱 대령이 속초에 있는 부대, 이런 부대에 해서 5명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모르고 있고,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김병주 위원** 그리고 11월 7일 날은 사령관이 전화해서 이 인원들 휴가 갔느냐 물어보고 당분간 휴가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었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런 지시 한 적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다 확인이 된 사항인데 왜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4일 날 정도 돼서 이것 없었던 것으로 해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없기는 왜 없습니까, 자세한 것까지 다 있는데.

그리고 12월 3일 날 관련된 일은 대령 2명이 다 집결 소집을 했어요. 7명이 가 보니까 거기 15명, 16명 비슷한 인원이 있었다는데 이 인원들은 어느 부대 소속이에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김병주 위원** 판교 모처에서 가니까 21명이 합류해서 대기를 했잖아요, 새벽 5시까지.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당일 아니고 그다음 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병주 위원** 3일 날 21시까지 4박 5일 정도 짐을 싸 가지고 올라오라고 이 두 대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갔고 그래서 21명이 대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상계엄이 해제 안 되면 사회를 혼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됐을 것 같고요. 이것 정보본부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보고 안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중앙선관위 침투한 인원 있잖아요. 선관위에 간 인원 관련한 것도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보고 안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상급자가 누구인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1차 상급 지휘관은 정보본부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상급자한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장관님한테 받은 임무 관련해서 보안 유지 차원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보고 안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보본부장 나와 보세요.

정보본부장은 여기와 관련된 내용 일체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 원천희 예,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한테 지시받은 적 없어요?

○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장 원천희 예,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드론사령관 나와 보세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입니다.

○김병주 위원 일요일 날 화재 난 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자연 발화라고 얘기했지  
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김병주 위원 그 증거는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어떤 증거 말씀하십니까?

○김병주 위원 평양에 무인기 보낸 증거, 그리고 평양에 무인기 보내다가 1대가 우리  
국내에 떨어졌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보관돼 있나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드론사령관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던 것을 시행했고 그래서 그러한 근  
거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 화재가 난 경로 추정되고 그때 연천과 김포 일대에서 보냈고 1  
대는 추락을 했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확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확인해 드릴 수 없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드론사령관님, 지금 발언하신 것 중에 수정할 것 있거나……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아까 화재에 관련된 것을 정정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하셨나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화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셨어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재가 발생한 것은 맞고 거기 안  
에 드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드론과 드론 발사대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 드론은 없었습니다. 발사대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 총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안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의장한테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상황 보고만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지휘 보고도 안 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네요.

○위원장 성일종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죄송한데 추가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혹 중첩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엄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언제 확인했고 언제 인지했느냐, 계엄 실행 계획의 참여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특전사령관께서는 12월 1일 날 알았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분들 중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계엄 선포를 알고 계셨던 분 계시면 죄송스럽지만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오른손.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러면 특전사령관만 사전에 알고 계셨다, 맞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손을 듭)

○강대식 위원 오케이.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계엄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박범계 위원 가만있어요! 왜 대화를 하고 그래요?

○강대식 위원 박 위원님,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박 위원님!

○김병주 위원 서로 대화를 하면서 또 코치를 하려고 하니깐,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일종 다른 위원님은 가만히 계셔 주세요.

○김병주 위원 저기야 얘기할 수 있지요. 강대식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위원장 성일종 다른 위원님은 가만히 계셔 주세요.

강대식 위원님, 발언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보도에 따르면 우리 광 전 특전사령관이 몇 가지 중요한 진술을 오늘 보도를, 근거를 들어 보면 차관님, 총장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엄 관련해서 말이 맞추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특전사령관 일어나 보세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강대식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나열한 분들 말고도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말 맞추어진 사람, 관계자가 가까이 계십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제가 말씀이십니까?

○강대식 위원 그럼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광 사령관께서 말을 맞추는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났는데 광 사령관하고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관계관들하고 총장이 나 차관이나 이렇게 말을 맞춘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말 맞춘 것은 없고 제가 느낌상 다 TV 보고 알았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12월 1일 날 장관이 저한테 얘기……

○강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을 맞춘 사람은 없고.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저는 느낌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강대식 위원 단순히 TV 보고 계엄선포령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맞추어진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그렇습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대식 위원 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주도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문건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계십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예.

○강대식 위원 실장께서는 김 전 장관하고 굉장히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장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계엄 선포 계획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전혀 모릅니다.

○강대식 위원 전혀 모른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예.

○강대식 위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혹시 그러면 포고령을 포함한 계엄 준비 문건 이런 실행 계획 등의 작성에 관여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전혀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혹시 이런 문건 작성의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만약 한다면 아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문건 작성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아무리 파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우리가 지금 참 암울한 거기인데…… 707특임단장 계세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강대식 위원 후문에 가서 빨리 문을 잠그자, 케이블타이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이 케이블타이는 국회의원 체포용입니까, 아니면 문 잠그는 용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문 잠그는 용입니다.

○강대식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국회의원 체포용입니까, 아니면 문 잠그는 용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날은 문 잠그는 목적으로 가져가라고

강조를 했고, 평소에 항상 휴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휴대 목적은 테러 진압 시 테러범을 포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강대식 위원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 장관이 계속 전화로 지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가지고 박종근 사령관한테 계속 내용을 전달하는데, 약 한 30통 전화로 전달하는데 어떻게, 안보폰으로 전화할 때 혹시 특임단장은 옆에서 들리니까, 그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으나……

○강대식 위원 김용현 전 장관하고 특전사령관하고 전화 통화를 삼십몇 통을 했다고 했는데 특임단장께서 그것을 들었냐 이 말입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고 사령관이 저한테 안보폰으로 전화를 이십여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앞으로……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박범계 위원 검찰에 가서 1차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12월 1일 날 이것이 계엄이구나라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김용현이고 부, 종이 대통령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것은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고……

○박범계 위원 그건 감사의 전체적인 질문 태도상 그렇게 느낀 거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것은 제가 단장으로서나 그냥 느낌상 그런 것을 느꼈다고……

○박범계 위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왜냐하면 조사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 김용현 국방부장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박범계 위원 계엄 전이든…… 아까 12월 1일 날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잖아요, 여섯 군데 딱 찍어 가지고?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박범계 위원 12월 1일부터 포함해서 계엄 전이든 계엄 당일이든…… 당일에 진입을 지시했잖아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박범계 위원 그리고 진입 중지를 명령했잖아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박범계 위원 그때까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 많이 받으셨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전화를 받으면서 김용현 장관한테 나 이것 이행할 수 없습니다, 나 이견 있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김용현 장관과 완전한 의사소통이 되고 부하로서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순응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순응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렇게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지휘하면 됩니다. 주가 장관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특전사령관을 통해서 개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내란죄의 주범이, 수괴가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건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그 최종적인 법률적 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십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제한됩니다.

○박범계 위원 됐습니다.

말이 맞춰져 있는 듯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세 장에 이르는 이 분량은 특전사령관께서 저한테 한 내용을 제가 하나도 빠짐 없이 메모한 겁니다.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박범계 위원 제가 진술을 유도하거나 그런 적 없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박범계 위원 검찰이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말이 맞춰져 있어서 검찰 조사에서 12월 1일에 사전에 알았다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건 사실입니다.

○박범계 위원 사실입니다. 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른 사령관들, 특히 수방사령관……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 부분을 구분해서 잠깐 조금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좋은데요. 지금 이것 하고. 제가 까먹기 전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12월 1일 날 사전 계엄령을 알았는데 이걸 정말 실행할까라고 생각했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북풍, 사령관이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북풍으로 이해했습니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6개소는 북풍과 관련 없는데도 이것이 왜 연결이 되는 논리 구조인지…… 그건 평소에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북풍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6개소가.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김어준 등등.

‘이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안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박범계** 위원 그 북풍이 뭐냐라는 내 질문에 ‘드론이든 포든 때려 놓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그런 전시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 상황으로 이해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박범계** 위원 드론이든 포든 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맞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때리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해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드론이…… 오늘 드론사령부 사령관 NCND,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다 죽는다. 이렇게 가면, 깨부수고 들어가면 무수히 다치고 다 죽는데 그래서 이동 중지시켰다’, 왜 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면 왜 다 죽는다, 무수히 다친다 이런 표현을 왜 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현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개통하려면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많은 인원이 다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후에는 그게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제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다수의 인원들이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판단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많은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치고 나가려면 결국은 유혈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얘이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때의 어떠한 수단이라는 게 뭡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공포탄하고 전기충격기 이런 수단들이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테이저건?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테이저건으로 다칠 수 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목숨을 거둘 수 없으나 정말 심각하게 다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박범계** 위원 심각하게 다칠 수 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계엄 그 한 부분만……

○박범계 위원 그러십시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 이해가……

제가 12월 1일 날 직접 비상계엄이 언제 선포되니까 여기 여기 여기를 확보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확보해야 될 임무를 어디 어디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그런 것이다라고 제가 유추해서 판단한 것이지, 12월 1일 날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너는 여기 여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방사에서 그 부분에 약간 혼선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꼭 사령관님.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예.

○위원장 **성일종** ‘말이 맞춰져 있었다’…… 있는 것 같데요, 맞춰져 있었다예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제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걸 어떤 느낌에서 그렇게 받았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오늘 계속했던 것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TV 보고 비상계엄령이 됐다는 것을 그때 최초로 인식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성일종**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한테 전달되는 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저는 그게……

○위원장 **성일종** 본인의 개인적 생각인지, 아니면 누가 이야기하거나 느낌으로 아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생방송으로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어 정의를 아주 잘하셔야 돼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느꼈다고 하는 것하고, 본인이 정말로 그런 판단이 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걸 느꼈다는 건데 검찰에 가서는 느끼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드려……

○박범계 위원 왜 그렇게 유도 신문합니까?

○위원장 **성일종**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박범계 위원 아니, 내가 다 물었는데 왜 위원장님이……

○위원장 **성일종**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범계 위원 아니, 다 물어서 답이 나왔는데 왜……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 갔을 때는 조사를 일대일로 받았을 거잖아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건 제가 더 묻습니다, 이건 국민한테 알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 느낌이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할 때 보니까,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는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 것 아니에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원장 **성일종** 오늘 여기 와 가지고, 관계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느꼈을 수는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검찰 갔었을 때는 느낄 수가 없잖아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전에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선으로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의 대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TV 보고 알았구나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분명히 제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전에 어떤 분들하고 몇 분 정도의 통화를 했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 시간과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여기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제가 솔직히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 다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지금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오히려 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묻는 거예요. 위원장이 지금 여야 이런 것 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하십시오.

○허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들의 질문을 굉장히 흐트러트리고 혼동스럽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들의 질의권을 순서대로 보장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위원장님 순서로 해서 이 질문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위원장님의 질의로 혼동스러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제가 편향되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까 특히 특전사령관이 나왔을 때 ‘조금조금씩 알았다’, ‘12월 1일 날부터 알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점검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영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유념을 하고, 가능하면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는 제가 끼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거나 정확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직무대리, 당일 날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누구누구 있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때 합참 지휘통제실에는 대부분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결심지원실에 누가 있었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결심지원실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 결심지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도로가 아니고……

○박선원 위원 박안수 장군, 결심지원실에 대통령하고 김용현 장관하고 또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처음에는 여러 분이 계셨고, 그때그때 좀 바뀌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기본 고정 인원이 누구누구예요?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한 7~8분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다음에 정진팔 차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선원 위원 있다가 없다가 그랬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박선원 위원 있다가 없다가 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합참의장은 없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합참의장도 모르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을 내란 세력, 대통령, 국방부장관, 육군총장 그리고 몇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서 국방부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지시하고 그걸 못 참고 대통령이 또 지시하고 그런 것 봤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잘 대답하세요,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처리할 거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결심지원실에서 뭔가 통화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뭐 했어요, 결심지원실에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거기에는 해제가 된 상태에서 오셨고, 오셔서 가지고 비교적 장시간 침묵이 이루어지셨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몇 가지 현안을 보고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가 수행……

○박선원 위원 그러면 해제되고 몇 시에 왔다는 거예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해제되고 한 30분쯤 지난 것 같습니다.

○박선원 위원 거기서 말하는 해제란 무엇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 해제 의결이 된……

○박선원 위원 의결, 그러니까 약 1시 40분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한 1시 삼사십 분……

- 박선원 위원 1시 삼사십 분에 대통령, 국방부장관, 육군총장 그리고 한두 사람 더 있었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계엄사령관하고 장관은 어디 있었어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장관님은 전투통제실 3층에 계셨고……
- 박선원 위원 전투통제실?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저는 그 한 층 아래에 있는 작전……
-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전투통제실이 합참 아니에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합참 전투통제실에 쫓 계셨고……
-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왜 합참에 들어가서 계엄을 지시하고 이렇게 내란을 지휘하는 거예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내란을 지휘한 게 아니……
- 박선원 위원 대통령이 또 결심지원실에 들어가고, 이것 자체가 북한의 남침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것을 오로지 이용해 가지고 내란을 일으킬 생각밖에 없었던 거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 박선원 위원 잠깐만 시간 끊어 주세요.  
문상호 장군 나와 봐요.  
서로 미끄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잘 모릅니다.
- 박선원 위원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 박선원 위원 본인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 박선원 위원 근무했지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예.
- 박선원 위원 노상원 씨도 그때 경호처장 했지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선원 위원 그런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지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 박선원 위원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지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혀,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근무합니다.
- 박선원 위원 이번에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지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박선원 위원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다음에 박민규 후임인 김봉규 몰라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것은 사령부 저희 인원입니다.
-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정성욱 알아요, 몰라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알고 있습니다.

- 박선원 위원 그러면 그들에게, 20명 명단 누가 작성했어요? 20명 불러서 대기시켰다고 했는데 명단 누가 작성했냐고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 인원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 박선원 위원 누가 선발했냐고.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지금 말씀하신 인원들이 선발했습니다.
- 박선원 위원 정성욱, 김봉규가 선발했지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예.
- 박선원 위원 국방조사본부장, 이들 바로 조사하세요.
-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알겠습니다.
- 박선원 위원 그리고 정보사 지통처 소령 김성호,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계획처장은 아주 가까운 거의 참모지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예, 말씀……
- 박선원 위원 그리고 지통처의 소령 김성호는 어떤 관계예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잘 모릅니다.
- 박선원 위원 잘 몰라요? 그러면 고동희가 데려간 거예요, 선관위 서버 검색할 때?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 인원을 데려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박선원 위원 선관위 서버에 총 몇 시간 있었어요? 계속해서 고동희한테 보고 받았잖아요, 사진 찍고.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계속해서 보고받은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총 3시간 20분이지요? 그래서 문 사령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동희한테 받은 정보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달 안 하고 제가 참고했습니다.
- 박선원 위원 혼자 참고했어요? 그러면 고동희는 사령관 누구에게 보고했어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저한테만 보고했습니다. 제가 현장 상황에 대한……
- 박선원 위원 지금 잘 이야기하세요. 3시간 20분이면 중앙선관위 서버 전부 털었을 시간이에요. 알고 있어요? 임무를 완료한 거예요. 알고 있냐고.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내에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선원 위원 3시간이면 그거 서버를 들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턴 거라고. 그래서 고동희랑 김성호랑 보냈고 사진 찍어서 보고 받은 거지요?
-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말씀하신 털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선원 위원 서버를 다 털어 왔다고, 3시간 20분만에.  
또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 오늘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밤샘다고 그러셨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채보충 질의를 드릴 거고요.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위원장님, 총장이 조금 발언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예, 총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설명드리는 게 조금 빨리 지나가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휘 통제하는 곳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합참을 잘은 몰랐지만 가 보니까 3층 한 층 높은 3층에 지휘통제, 전투통제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 걸 다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닙니다.

○위원장 성일종 층수나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보안 사항에 걸리지는 않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건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박선원 위원 누가, 대통령이 지휘했냐 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여기 한 층 높은 곳하고 한 층 낮은 곳이 있고 한 층 높은 곳에 아까 말씀하신 회의실인가 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지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원탁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필요 시에는 화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투통제실은 평상시 C4I를 전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한 층 아래의 부분에는 필요 시에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셨을 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장님, 지금 총장이……

○박선원 위원 차관, 결심지원실 물어본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중요한 전투시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끊어 주셔야 됩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게, 제가 보기에……

○박선원 위원 지통실 결심지원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위원장 성일종 총장님, 그것들이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만약에 그런 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마치려 합니다. 보충질의까지 마쳤는데 마치기 전에 뒤에 나와 계신 관계관들께서 수정할 거 있거나 또는 약간 보충할 게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손 드신, 누구지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장군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어떤 내용을 하고 싶은가요?

마이크 드리세요.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나오셔서 하세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국민 모든 분들  
께……

○위원장 성일종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뭐 인사하는 줄 알아요? 본인이 할  
이야기, 위원들 질의에서 빠진 거 있거나 정정할 거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세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정보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 납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가 물론 답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쌓아 온 굉장한 자산들을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지켜야 될 부분 또 정보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21시 정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무슨 21시예요? 30분만 쉬고 하세요.

○한기호 위원 화장실 가야 되잖아, 다 앉아 있는데.

○위원장 성일종 식사도 하시고 지금 구내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오셔  
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차관님, 안 계셔 가지고 차관님께 질문 못 했……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잠깐만요.

3분을 드리고요. 이게 7·5·3이기 때문에 제가 3분을 드리고 또 한 번 더 돌 테니까 그  
렇게 하겠습니다.

○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이 오전에 안 계셔서 제가 법무관리관님께 질문했는데 법무관리관님은 법률 검  
토를, 포고령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 총장의 말씀은, 김용  
현 장관은 박안수 총장께 포고령을 전달하면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박 총장께 얘기  
했다고 박 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법무관리관은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법률 검토를 한 것입니까?  
국방부 내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없습니다.

○조국 위원 없습니까? 확실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확실합니다.

○조국 위원 법무실장도 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무관리관 말고도?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법무실장한테 확인을 했고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조국 위원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약간 해프닝 같습니다마는 1호기가 연습 비행을 하는데 그게 보도 난 건 보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봤습니다.

○조국 위원 그와 별도로 1호기는 공군 소속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공군 소속이 아니라 운용을 공군에서 합니다.

○조국 위원 운용은 공군인데 요청은 대통령실이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조국 위원 만약에 현재, 차관께서 어제인가요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셔서 군 통수권이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답하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1호기를 발동시키는 명령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현 상태에서 말씀이십니까?

○조국 위원 지금.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1호기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경호처에서 요청이 올 것이고 공군에 요청이 갈 것이고 그건 국방부 사안이 아니고……

○조국 위원 그러면 공군참모총장도 계세요, 여기?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여기 공군총장은 없습니다.

○조국 위원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조국 위원 지금 내란 수괴로 수사를 받고 곧 체포 구속될지도 모르지만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고 따라서 통수권이 있는 자가 1호기를 달라고 그러면 공군에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운용하는 공군……

○조국 위원 국방부 차원에서 그걸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어떤……

○조국 위원 이렇기 때문에 빨리 직무 배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후 질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특전사령관께서 12월 1일 날 계엄 문제를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그 전에 그러면 김용현 장관, 여인형 사령관, 꺾 사령관 또는 수방사령관님은 언제 알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와 관련해서 이 12월 3일

내란에 대한 사전 모의 문제에 대한, 모의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짜가 특정이 돼 버렸어요. 12월 1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2월 1일부터의 동선, 그다음에 군검찰 차원에서는 동선 외 통신내역 그다음에 군 사령관들의 동선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에 대해서 자체조사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그 관련 수사들은 저희들이 수사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군검찰하고 합동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나 그런 쪽에서 만약에 수사 협조 의뢰가 오면 저희가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위원 아직 요청은 안 왔다는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특전사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허영 위원 저인데요?

○임종득 위원 순서가 안 맞나요?

○허영 위원 예, 제가 먼저인데?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께서 안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조국 위원…… 유용원 위원님이 방금 들어오셔서 제일 뒤로 빠지십니다.

○임종득 위원 바꿨다는 것이지요?

○허영 위원 제가 원래인데 추미애 위원님이 방송 출연 때문에 가서 가지고 임시적으로 좀 바꿨던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바꾸는 것대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허영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유용원 위원님, 조국 위원님, 추미애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용원 위원님이 조국 위원님보다 한 타임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천생 제일 뒤로 빼야 합니다.

○유용원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특전사령관님은 지금부터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 자기의 느낌이나 추정을 말하지 말고 사실만을 좀 말해 주기 바랍니다.

사령관님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2월 1일 국회 등 여섯 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임종득 위원**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이 1일 통화를 통해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니까 여섯 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장소만 얘기했지 3일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궁금하지 않았어요? 질문 같은 것도 안 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왜 안 했지요? 그리고 그냥 느낌으로만 받았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앞서 얘기했듯이 그 완수를 말할 때 그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 이런 것은 안 여쭙봤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가지고 다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특전사령관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을 우려스럽게 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하게 할 수도 있고 파장이 엄청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임종득 위원** 저녁 먹기 전에 했던 발언이 속보로 해 가지고 지금 다 뜨고 있지요? 저한테 지금 수없이 많은 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무게감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장군이잖아요, 그것도 특전사령관. 거기에 걸맞은 무게감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제발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임종득 위원** 계엄 선포 시점을 알게 된, 계엄 선포와 관련 돼 알게 된 시점을 아까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군인들이 사전에 입을 맞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를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거는 제 생각, 단순히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제 한 것이……

○**임종득 위원** 아니, 그렇게 느끼게 된 배경이 뭐냐고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대부분의……

○**임종득 위원** 증명할 팩트가 있어요? 그 느낌을 뒷받침할 만한 뭐가 있어야지 3성 장군이냐 되는 분이 이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팩트가 뭐냐고요, 느끼게 된 팩트.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

○**임종득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모든 답변이 다, 오늘 오전부터 했을 때 TV 보고 다 알았다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종득 위원**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임종득 **위원** 알면서 그렇게 해요?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왜 이렇게 억박지르세요?

○임종득 **위원**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황희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주눅 들잖아요.

○임종득 **위원** 아니, 내가 사실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느낌을 이야기하지 말고.

○황희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게 들려서 그래요.

○허영 **위원** 은폐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은 가능하면 존중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각각의 시간 다 보장해 주시고요. 묻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사령관님, 하나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월 1일 날 장소는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 들었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오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12월 3일……

○위원장 **성일종** 12월 3일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장소는 얘기를 했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것 안 것은 12월 3일 이에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3일……

○위원장 **성일종** 3일이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1일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박범계 **위원** 1일이라고 했어요, 방금.

○위원장 **성일종** 아니지요. 12월 1일은 장소 6곳만 받았다……

○박범계 **위원**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뭐를요?

○황희 **위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박범계 **위원** 왜 이렇게……

○위원장 **성일종** 아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박범계 **위원** 꼭 검찰 하듯이 하네.

○황희 **위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 위원장 성일종 검찰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지 왜 그래요?
-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은 왜 매 순간마다 결정적일 때 끼어들어 가지고……
- 황희 위원 은폐하려고 온 거예요, 밝히려고 온 거예요?
- 위원장 성일종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 박범계 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들이 다 밝히고 여당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 황희 위원 이게 무슨 은폐하는 자리입니까?
- 위원장 성일종 본 위원도 물어볼 수 있어요.
- 박범계 위원 그러면 자기 차례 지켜 가지고 하세요. 왜 결정적일 때마다 물을 타십니까?
- 위원장 성일종 아니, 이것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 박범계 위원 다 중요해요, 다!
- 위원장 성일종 자, 그래서……
-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매번 회의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은 총괄……
- 위원장 성일종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 안규백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성일종 이거야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 안규백 위원 다 끝나고 나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셔야지……
-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그러면……
- 안규백 위원 건건이 개별 위원들마다 질의하시면 안 되지요.
- 위원장 성일종 제가 회의하면서 언제 한 번 했어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서……
- 박선원 위원 오늘 계속 그러고 있어요.
- 위원장 성일종 하나하나 매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규백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미 1일이라고……
- 위원장 성일종 아니, 야당 위원님들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 황희 위원 뭐가 불리합니까?
- 안규백 위원 유불리를 떠나서 위원장님으로서는 권위가 있잖아요. 다른 개별 위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서머리(summary)를, 총평을 내 주시고 질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에요.
- 위원장 성일종 사령관님, 돌아가시고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규백 위원 이진우 수방사령관, 사령관께서는 12월 3일 날 여기 국회 주변에 계셨지요?
-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렇습니다.
- 안규백 위원 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수방사령관은 수방사령관으로서의 그 태도와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요. 사령관들께서 입을 다 맞추고 와서, 여기서 본인만 진두지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앉으세요.

차관, 방첩사직무대리로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을 임명한 이유가 뭘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방첩사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장군을 추천하기가 어려웠고요. 저희가 보직, 임무 대리를 결정하는 그 상태에서 파악했을 때 참모장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돼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차관님, 12월 2일 날 퇴근 무렵부터 퇴근하지 아니하고 참모장과 1처장 그리고 이후에 10시 넘어서 수사단장이 집에 있다가 같이 합류합니다. 그래서 14명의 체포명단을 주었고 그 이후에 4대의 승합차를 이용해서 국회로 체포조가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시간대에 참모장과 1처장과 그다음에 집에 계시다가 수사단장이 방첩사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이 주요 역할이 이경민 참모장과 1처장 그리고 그 이후에 10시가 넘어서 10시 반 발표 어간에 수사단장이 같이 합류를 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배제를 해야지 왜 이분한테 직무대리를 맡기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제가 12월 2일 날, 하루 전에 그렇게 사령관하고 참모장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에서는 제가……

○안규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안규백 위원 꼭 하십시오.

방첩사 경호경비대장 중령 양승철, 여기 계시지요?

○국군방첩사령부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 예,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12월 3일 날 당시에 참모장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 저는 계엄령 뉴스 보도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참모장께서 신변보호팀을 소집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 몇 시에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 장소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우선은 ‘신변보호팀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바로 소집시켜라’ 그렇게까지만 지시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 위원 차관, 양 중령의 말씀을 들어도 이경민 참모장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모의, 주모자들 핵심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분한테 방첩사를 맡기면 증거 인멸 우려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존 문안도 폐기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황들이 그 이후에 계속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무 수행 계속의 적정성을 제가 다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차관님, 투입된 계엄군 전체 규모가 몇 명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정확한 규모를 지금 직접 파악을 못 했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 예상……

○허영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한 700~800명 정도……

○허영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수도방위사령부 211명 이 중 국회 울타리 내에 48명, 특전여단 1공수 277명, 707특임단 197명, 방첩사령부 49명 체포조, 정보사령부 8명 선관위 서버, 정보사령부 HID 7명, 여기까지 749명입니다. 그리고 3공수특전여단 231명, 9공수특전여단 211명. 특전사령관, 맞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허영 위원 그러면 모두 합쳐서 1191명입니다.

특전사령관, 여기에 ‘여론조사꽃’에 몇 명 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1개 지역대 규모로 갔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딱 말씀드리기가……

○허영 위원 민주당사에는 몇 명 계획되어 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1개 대대 규모 계획이 있었습니다.

○허영 위원 장관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엄군 투입 인원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1200명에 달하는 장병들이 여기 계신 지휘관들 때문에 내란·군사반란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지고 살게 됐어요.

수도방위사령관,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파견했다고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게 수도방위사의 임무입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특전사가 국회 창문 깨부수고 들어왔을 때 특전사하고 교전했습니까?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국회를 보호하러 왔으면 여기 앉아 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디서 그런 자기 방어를 합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방어가 아니라 임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영 위원 그래서 보호를 했어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것을 저희가 들어오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서……

○허영 위원 앉으세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앉으세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안에 있는 간부한테 부탁해서 저희 배치를 좀 알려달라고 했고……

○허영 위원 앉으세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게 아니면 오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몰라서……

○허영 위원 그러면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국군방첩사령부령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조항에 보면 제3조(기본원칙)의 금지 조항이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령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휘관 아닙니까? 그런 부령은 양심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지침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부했어야지요. 1200명의 장병들의 가슴에 평생 안고 갈 내란과 군사반란과 계엄의 트라우마를 여러분들이 켜운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드론사령관님 좀 나와 보세요.

드론사령관님, 사령관님이 보직을 언제 받았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5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번에 실제로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김여정이가 얘기한 것이 10월 11일이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

○한기호 위원 10월쯤으로 기억하시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북한의 발표를 보고서 사령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시는 겁니까?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띄운 무인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

○한기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그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드론사령관님 입장에서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예?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보냈다는 거예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드론을 보낼 경우에 드론에 대해서, 실제로 드론을 우리가 평양까지 보내서 조종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그것은 드론에 대한 제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어떤 제원 사항이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능력을 말씀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날 원점 타격을 하라는,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11월 28일 날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받은 적이 있습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격형 드론이 없습니다. 공격형 드론은 현재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공격형 드론은 없다?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정찰용 드론?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정찰용 드론만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실제로 그러면 원점 타격 지시도 없었다?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드론사령관님 입장에서, 지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것을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게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자극을 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다?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중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드론사령관님, 나와 계세요.

드론 추락해서 급히 수거한 적이 있지요? 5군단 지역 내에서 트럭을 보내서, 거기에 뼈라통도 있었어요. 똑같은 종류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평양에 보낸 것 확인해 줄 수 있지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수사, 조사, 감사원 감사 모든 것을 다 받고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부승찬 위원 들어가십시오.

심리전단장님 나와 주세요.

대북전단 뿌렸지요?

○국군심리전단장 양현승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대북전단 심리전단에서 제작해서 뿌렸지요?

○국군심리전단장 양현승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마찬가지로 감사, 수사, 조사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코버트 액션(covert action), 공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군사보좌관.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예, 군사보좌관입니다.

○부승찬 위원 포고령 봤지요? 사전 검토했지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아닙니다. 포고령은 장관님께서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을 때 포고령을 봤습니다.

○부승찬 위원 작성된 건 못 봤어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작성된 건 보지 못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첩사 참모장 앞으로 나오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훈련에 대비해서 계엄 합수부 참고자료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부대령에, 직무에, 계엄 업무에 나와 있어요?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내란 음모 혐의는 무혐의 나왔습니다. 직권 남용이 기소됐습니다. 왜 부대령에 없는 걸 합니까? 직무가 아닌 걸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직무에 없어요. 부대령에 있어요, 계엄 업무 지원? 답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부대령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저희들이 전시에 합수부……

○부승찬 위원 됐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장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차관입니다.

○부승찬 위원 전 장관 보안폰 압수수색 목록에 들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경찰이 왔을 때는 압수수색 목록에 없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보안폰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현재 반납을 해서 반납한 후 보관되는 곳에서 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직 압수가 안 됐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승찬 위원 보존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부승찬 위원 대행님께서 확실히 책임지고 보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제가 처음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비상계엄 자체가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권력을 갖지 못한 자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도 일으키고 군사반란도 일으키고 내란도 일으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모두, 예산편성·집행, 감사원 기능을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범치라든가 사회 시스템 이런 원칙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폭력을 휘두른 거거든요. 아주 죄질이 나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군 통수권자고 국방부장관이고, 여러분의 국방부장관은 선배이기도 하지만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잘못된, 일그러진 민간인 두 사람이 지금 우리 군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둘은 무책임하게 도망가고 있어요. 국방부장관은 이제 슬슬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상의했어요 서로 이러기 바랍니다. 군의 명예는 군인이 지켜야 돼요. 지금 군복 벗고 도망갔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이게 왜 경비계엄이 아니고 비상계엄이겠어요? 참모총장님,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이게 사회질서 교란 이런 것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경비계엄을 해야지 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닌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국민의 기본권도 마음대로 유린하고 제한할 수 있고 군법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뭐가 좀 안 되냐면 국회가 비상계엄 영향권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고령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상당히 치밀하게 모의되고 계획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모르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 국방부장관 둘의 단독 범행, 그 외에는 다 모르고…… 그러면 어떤 생각,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용산 비서실이라든가 아니면 여권 실세라든가 아니면 기타 검찰 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뭔가 이것을 논의하고 계획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당이라든가 세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이야기 증언을 해 주셔야지요. 입을 왜 다물고 있습니까?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특전사령관님 나와 주세요.

시계 좀 멈추고……

○**위원장 성일종** 멈췄습니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김병주 위원**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대통령하고 통화 여부나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게 답변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내란 수괴인데 왜 김용현을 내란 수괴로 만드는 것 같다고 얘기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제가 받은 질문과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러분들이 여기 국방위에서 사실·진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겁니다. 검찰 같은 데에서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면죄부를 조금이라도 주려고 군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걸 아주 깊게 우려하고요.

방첩사 참모장 나와 보세요.

올 3월에 연합훈련할 때 충성 8000이라는 계엄훈련을 했었지요, 합수본부 만드는 훈련?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합수본부 운영할 때 충성 8000을 인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하여튼 계엄훈련을 한 거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합수본부 운영 관련해서……

○**김병주 위원** 그게 그거지, 말을…… 계엄 때 합수본부 운영하는 게 방첩사 아니에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합수본부 운영 관련된 겁니다.

○**김병주 위원** 계엄 때 방첩사 임무가 뭐예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합수본부 운영하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 합수본부 운영이니까 계엄 훈련을 한 것 아니에요.

2주 동안 했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FS 연습이 2주고, 그중에서 합수본부 운영에 관해서 훈련한 것은 정확하게 얼마나 한지는 저는 그때 담당 처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2주 했어요, 평상시 매년 1박 2일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비상계엄 당시에 도청을 정보사도 하고 방첩사도 아침 9시까지 했는데, 도청 어느 부대가 했나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저는 도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알고 있어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보사가 했나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들어가세요.

특전사령관 다시 나와 보세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김병주 위원 13공수하고 7공수가 출동 대기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언제쯤, 어떤 상황에서 투입하려고 했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것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2교대가 길어지면 2교대를 준비하거나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 지시만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비상계엄 시기에 뭘 했는지 소상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시간대별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비상계엄이 발령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부대 복귀를 지시하고, 부대 복귀한 것은 한 1시간쯤 지난 한 23시 40분경에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복귀해서는 국방부 지휘통제실, 합참 지휘통제실에 합류했고 그 이후에는 뭐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같이 있었지요, 장관하고?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서 한 게 뭐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때 특별히 한 것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김병주 위원 그것 말이 되나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말을 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장관님께서 직접 부대를 지휘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은 안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이, 장관이 조언을 한 것은 뭐 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조언한 것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지는 않았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한 번 건의는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

○김병주 위원 언제쯤, 어떻게 건의했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게 국회에 병력이 들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뭐라고 건의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병력 투입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

○김병주 위원 대통령이 왔을 때 뭘 얘기 했나요, 차관님이?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때는 제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김병주 위원 용기를 내서 가서 중지해야 된다고 하고 싶지 않았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지금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내란은 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나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제가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다시 또 드릴 테니까 그때……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그 한마디만 하세요. 내란은 군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병주 위원 내란에 관계된 것은 민간까지 군에서 할 수 있지요, 내란 현행법들은. 왜 수사를 안 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이번 비상계엄에 관련된 그 중심에 국방부가 있는데 국방부 자체가 수사를 한다는 것이 안 맞아서 저희가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김병주 위원 누구 결심이에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 결심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특전사령관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인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상현 1공수 특전여단장 여기 계십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예.

○강대식 위원 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내라. 안 되면 전 기라도 끌어라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상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 말씀했다고 말씀을 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예.

○강대식 위원 직접 들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강대식 위원 김현태 707 특임단장,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사령관이 당시 전화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게 가능하겠냐’고 물었고 ‘진입도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이후 전 사령관은 ‘그래, 알겠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들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기억하는 것은 150명의 숫자를 기

억하고 있고 들어갈 수 있겠냐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고 저는 들어가는 데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령관이 그러면 됐다고 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진입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면서요. 707특임단장이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 그걸 물었잖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니까 사령관이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합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제한되면 무리하지 마라 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저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특전사령관이 무리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 때가 특임단이 본청 진입을 시도한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이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상현 1공수여단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여단장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지시한 것 아까 전에 맞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예, 상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 언제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저희 선두 제대 1대대가 00시 30분에 도착했는데 의결이 된 01시 그사이에 말씀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를 받았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보안폰으로 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전 특전사령관이 끌어내라,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를 여단장이 출동 부대에 지시한 적은 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선두 1대대가 건물에 들어왔을 때 상황 보고를 받는 도중에 보안폰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대대장도 폰 들고 제 차에 있는 인원들한테 똑같이 알려 줘야겠다고 해서 제가 복명복창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대식 위원 그러면 특전사령관 조금 전에 제일 모두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지금 1공수여단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틀리잖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대식 위원 어떻게 해서?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상부에서 저한테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강대식 위원 그러면 전달만 했다 이 말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아닙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707특임단장한테 이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한 방법이냐라고 논의하고 설명해서 과정상에서 그게 제한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알았다, 그만하라고 했던 겁니다.

○강대식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어차피 밤새도록 할 거니까 좀 계세요. 거기 계시라고.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박범계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부승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김용현 전 장관이 쓰던 보안폰 이걸로 다 했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범계 위원 그 보안폰이 현재 압수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먼저 김동혁 검찰단장, 내가 아까 끝나면서……

마이크 잡아요.

잠깐 멈춰 주십시오.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예, 위원님.

○박범계 위원 범률가로서 마지막 양심을 걸고 잘해라 내가 그랬지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예.

○박범계 위원 마이크 대고.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예, 말씀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 내란죄하고 군사반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있지요. 그런데 김 단장은 배제되고 지금 군검찰에서 검찰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있지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보안폰, 김용현 전 장관이 쓰던 보안폰은 부승찬 위원님이 저한테 제보입니다, 같은 위원들끼리. 보안폰은 전체 서버 자체를 압수해야 합니다. 이걸 얘기하십시오. 폰 자체에는 기록도 안 남고 전화번호도 암호화돼서 확인의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해하시지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수사권도 다 있고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범계 위원 차관님도 ‘나는 관여한 게 없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나는 조금 아



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쓰던 보안폰을 움직이는 서버 압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만약에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본부를 운영하게 팀이.....

○박범계 위원 현재까지도 안 왔잖아요. 현재까지도 압수를 안 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지금 그 수사를 지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 김동혁 단장, 수사권이 있어요. 있지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예,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서버 압수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일단은 지금 수사권이 특수본에 있지만 특수본이 안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특수본이 수사권이 있지만’이 아니에요. 수사권은 중첩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범계 위원 맞잖아. 법률가잖아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본인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본인의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다만 제가 지금 수사상에서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직무 배제됐습니까, 차관님?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예, 수사에서는 배제돼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차관님, 지금 검찰단장이 검찰이나 경찰이 하지 않으면 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받았어. 지금 부하잖아요. 차관님, 이 서버 압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검찰단장이 압수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저지하거나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특수본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차관님,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검찰단장이 한다면 그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하겠습니다, 다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검찰단이, 검찰단장이 ‘특수본에서 하지 않으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수본에서 하지 않으면.

○박범계 위원 아시겠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합참작전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작전본부장님, 작전부장도 하셨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작전부장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연합연습을 1년에 두 차례 하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연합연습 두 차례 할 때 제가 데프콘이 격상되면 자동조치부호를 실행합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느 단계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데프콘이 격상되는 어느 특정 단계에 이르면 동원령이 선포되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동원령이 선포되고 미국에서는 아마 C-day가 선포돼서 같이 증원령이 선포되고 그러면서 접적지역 이동·철수, 주민 이동·철수가 일어나고 수도권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교통이라든지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겠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그때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해서 장관 건의에 의해서 통상 이루어집니다.

○강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것이 연합연습할 때 조치부호로서 우리가 늘 검토하는 주요한 사태 아닙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연합연습할 때 통상적으로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방첩사령부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수본부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연합연습 때 방첩사가 합수본부를 운영하고 계엄령에 대한 조치부호를 검토하는 것은 하나의 일상적인 연합연습의 절차라고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연합연습에 한정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앓으십시오.

특전사령관님 나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707단장 안 나와도 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저는 한때 특전사 그리고 707단에 몸담았었습니다. 그 부대의 구호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영내 구보를 했어요. 함성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한데 오늘 두 지휘관은 제가 갖고 있는 특전사, 707부대의 역사를 지우고 싶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여러분들 군복이 수의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군복이 수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책임지면 돼요, 구고하게. 제가 손자병법 얘기했잖아요. 필

생가로, 반드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707특임단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단장입니다.

○박선원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봐요. 이 사진에 나오는 병기가 어떤 때 쓰는 거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

○박선원 위원 부대 총, 산탄총 이걸 어디다 쓰냐고.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산탄총은 문 개방이라든지 또 인원 살상에도 사용 가능한 총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박선원 위원 이게 국회 들어가기 전인데 이거 들고 안에 들어간 인원 몇 명 있었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산탄총을 가져간 인원 에 대한 숫자는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저희 개인이……

○박선원 위원 기본 세팅이 있지 않습니까, 단장? K6……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휴대총은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산탄총을 들고 들어가서 지금 이걸로 문을 부수고 그 지시 이행했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유혈사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실탄은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시대로 이거 들고 두드려 깨면, 본청 뚫고 들어가면 유혈사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희 무기 휴대는 평시에 출동 장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박선원 위원 윤석열이 지시한 대로 문 두드려 깨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할 때 문 두드려 깰 때 쓰는 총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희는 군 제한……

○박선원 위원 산탄총 군인이 취하지요? 이거 들고 가서 문 때려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보좌관을 향해서 쏘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쏘면 죽을 수 있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실탄을 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실탄은 없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 깨려면, 그러면 이거 개머리판으로 깰 거예요? 실탄 넣고 깨야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만약에 실탄을 장전해서 문 깨고 그 안에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과 국회 경위가 막는 데 쏘으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지만 실전에는 없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박선원 위원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그래서 그 지시받고 항명이지만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장.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박선원 위원 그리고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지난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뭐 하셨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일요일 날 말입니까?

○박선원 위원 예, 문상호 며칠 날 몇 시에 만났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문상호요?

○박선원 위원 예.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문상호라는 사람 모릅니다.

○박선원 위원 문상호 사령관이 장관직대에 보고하러 온 적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모릅니다.

○박선원 위원 몰라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선원 위원 그러면 문상호 사령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정보사령관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박선원 위원 문상호 사령관,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누구 만났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장관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 만났냐고 묻지 않았어요. 12월 8일 저녁 7시부터 9시 누구 만났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원 위원 입 맞추기 하기 위해서 노상원도 만나지 않았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없어요? 그날 그러면 누구 만났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선원 위원 기억을 왜 못 해요?

국방조사본부장, 다 조사하세요. 그리고 군검찰단보다 국방조사본부장 계급이 높지요?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예.

○박선원 위원 서버 확보하세요, 당장. 군검찰단은 이미 직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국

방조사본부장이 바로 조치하세요. 장관직무대행이 막지 않겠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막지 않습니다.

○박선원 위원 국방부장관직무대행, 내가 이미 고발장 갖다 접수해 뒀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국방조사본부장, 반드시 비화폰 서버 확보하세요. 군검찰단 저 계급 가지고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는 못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예.

○박선원 위원 내가 내일이라도 계속해서 추가로 고발장 다 접수할 겁니다, 박헌수 총장 포함해서.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아까 건너뛰었던 추미애 위원님, 지금 오신 김민석 위원님 그렇게 세 분이 남으셨고요. 세 분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특전사령관님 나오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주시고요. 시간 좀 빼 주시고요.

아까 1공수여단장께서 상부에서 전기라도 끊으라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상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때 당시는 장관님도 그 말씀이 있었고, 들어가라고 하신 것. 그다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대통령께서도 전기라도 끊으라는 말씀하셨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전기는, 그건 아닙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부분들이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기는 제가 끊는 방법을 논의했을 때 나왔던 소리입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12월 1일에 6개 시설에 대한 확보, 경계에 관련해서 장관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지시는 비화폰을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비화폰이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그때 전 장관이, 예를 들면 계엄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비상상황 정도의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비상계엄 시에 이렇게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확보해야 될 지명 위주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 상황들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딱 써 줘서 나온 것은 12월 3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용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지시를 받으면 평상시에 민주당사니 뭐 확보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당연히 의문을 갖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말은 들었는데 그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듣고 다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확보하고 경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군에서 그런 지시를 받으면 당연히 어떤 시설에는 어느 정도의 병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사령관께서 그 당시에 6개 시설 확보 및 경계에 어느 정도 병력이 필요할 걸로 판단을 하셨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개략적으로 여섯 군데 얘기했을 때 각각 염두로 구상을 제 스스로 했던 부분들의 결과가, 명령하달하면서 대대별로 결합임무 지시를 했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게 아까 나온 숫자, 1200명 가까운 그 숫자입니까?

1200명 가까운 숫자입니까, 인원이?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건 전체 인원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각 1개 장소별로 1개 대대 정도 규모로 제가 판단했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누구하고도 상의를 안 하셨단 말씀이지요? 12월 3일 전까지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김현태 단장님.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추미애 위원**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세요.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헬기를 여의도 근처 한강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도 4·5월 실시했습니다’라고 했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노들섬 전개 훈련을 했습니까? 해마다 해 왔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노들섬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올해 처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추미애 위원** 그전에도 노들섬에서 한 적 있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노들섬은 제가 건의를 드렸고, 서울지역의 동시다발 테러 시 저희가 차량으로 통상 이동하는데 차량이 안 될 경우에는 항공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서울에 가서 수방사 모터사이클을 협조해서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걸 한번 해 보자고 제가 건의드려서 실시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럼 이 4·5월에 실시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왜 이 얘기를 했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것은 저희 부대는 순수하게 연초부터

서울지역의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훈련을 지속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미애 위원 알았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수방사랑 또 고척돛하고 MBC 홀하고 여러 군대를 했습니다.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수도방위사령관 했던 이진우 장군입니다.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예.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방사의 기본 임무가 서울지역 72개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통합방위훈련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 단계의 진입은 항상 특전사에서 들어오는데 그 전 단계에서 외부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오십 군대를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알았어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중의 하나가 4월 달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박선원 위원 자꾸 끼지마. 범죄 사실만 이야기해!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범죄 안 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범죄 안 했어? 아직도 내란……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군인이 훈련을 하는데 그게 범죄라고 하면 훈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추미애 위원 이진우 사령관!

○박선원 위원 내란이 훈련한 거야?

○위원장 성일종 조용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일어서세요. 일어서 김에 일어서세요.

그러면 장님 무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님 무사,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예.

○추미애 위원 무슨 말이에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안 보고, 봐야 판단을 하는 건데 안 본다는 건 생각 없이 칼을 휘두른다는 거지요. 마구 칼을 휘두른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 마구 칼을 휘두른 거나 똑같아요. 장님 무사나 같단 말이에요.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 여기는 방호과가 있어서 자체 경비가 다 돼요.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국회가 알아서 요청을 할 겁니다, 방호 인력이 모자랄 때는.

국회의장이 있어요. 회의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난입을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장님 무사와 마찬가지로 생각과 판단을 정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무장 병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데 귀관은 아까 큰 소리로 국회를 방호하러, 지켜 주러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시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전시에 잘하기 위해서 민간의 안전을 잘 살피고 훈련을 하는 것을 누가 나무람니까? 국회가 야밤중에 난입해서 훈련하는 장소입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이 와중에!  
앉으세요.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위원 아니, 물어보려고 하는 걸 물어보지를 못했네요.

○위원장 성일종 또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시간을 받아서 저도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3분 주시고요.

특전사령관님, 마이크 좀 가지시고 일어나시고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 일이 잘못됐고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명예도 있고 또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에 분명히 12월 1일 날 여섯일곱 곳에 대해서 명을 받았고, 그렇지요? 얘기를 들었고?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12월 1일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이야기 들었다 그랬고.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분명히 그랬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12월 1일 날은 거점에 대한 것만 받았어요,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장소에 대한 사항들만 얘기를 들었고……

○위원장 성일종 장소만,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계엄이라는 용어를 그때 들었다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12월 3일 날 계엄이라는 걸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계엄이라는 문구와 말을 그날 들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날 들었다고 그랬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 때 12월 1일 날 계엄이라는 걸 알았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계엄이라는 상황을 그 장소……

○위원장 성일종 가만히 계세요.

12월 1일 날 계엄이라는 걸 알았는데 12월 3일 날 행동으로 옮겼다, 이틀간 시간이 있었다, 이때 못 한다고 왜 설득을 못 했냐 했을 때 ‘안타깝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나요? 지금 이게 굉장히 왔다갔다해요. 신뢰성을 지금 본인이 무지무지 잃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 ‘검찰에 가서 얘기하니까 말을 맞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TV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이야기가 비슷하다. 그래서 느낌이 있다’ 그랬던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지금 아세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관여한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다 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주거나 혼란을 주거나 이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묻는 포인트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보세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정확하게 12월 1일은 6개 장소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비상……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때는 계엄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몰랐다고 지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고, 비상계엄이라는 용어가 안 나왔지만 계엄이라는 상황을 제가 이해하고 그 부분을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딱 나온 것은 12월 3일 날 그렇게 말이 나오고 문구가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됐습니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다음에 그러면 그 사이는 왜 보고를 안 했냐 그러면 그것은 설마 그렇게 되더라도 그게 비상계엄으로 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많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지금 있는데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용원 **위원** 제가 마지막에 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조국 위원님 안 계시고,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예,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정성우 1처장 나오세요.

오전 질의에서는 아주 대단히 뻔뻔하게 계엄 문건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시던데, 그 전 사령관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뭐니까? 경찰 지휘 통제를 위한 문건이지요. 경찰 비상업무 규칙, 이것도 모르십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는 최근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경찰의 비상업무 규정을 뽑아 달라 지시해서……

○추미애 **위원** 최근 언제입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최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 작성 자료가 압수수색 됐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 자료는 작성 시점이 나올 겁니다.

○추미애 위원 언제입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한 이삼 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지금으로부터 이삼 주 전?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된 공개 법령을 검색해서 경찰……

○추미애 위원 내가 기관에 대해서 정보 알려 해도 인터넷부터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인냐, 무슨 의도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정성우 1처장이 비서실장일 때 작성된 게 맞습니까? 인터넷을 봤든 참고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는 비상상황의 의미와 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등급이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거 왜 찾아봤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걸 뽑아 달라고……

○추미애 위원 바로 을호 비상 발령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이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위원님, 경찰청훈령 제1132호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것을 갖다 드린 겁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니까 왜 갖다 썼느냐 이거예요. 민간 통제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계엄 발령하면?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건 제가 모르는……

○추미애 위원 민간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세운 거 아닙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건 제가……

○추미애 위원 내란을 사전 계획 세우고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폐쇄하고 병력을 출동시켜서 국회의원 체포·구금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거기의 총칙과 비상근무 그리고 별표 1입니다. 나와 있는 사항은 별표 1……

○추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권한도 없는 방첩사가 계엄 준비 문건을 만들고, 이제는 군이 아닌 경찰 비상업무 규칙까지 작성을 해서 계엄 당시 경찰이 자체 규칙이 아닌 방첩사가 작성한 규칙에 따라 움직였던 거 아닌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방첩사 규칙이 아니라 그대로 경찰 비상업무 규칙, 훈령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리된 본입니다.

○추미애 위원 그래서 서울경찰은 을호 비상 하라라고 했지만 경찰청이 경계 강화로 등급을 낮춰서 발령을 하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PPT로 그것도 보여 주세요.

이렇게 경계 강화 발령 또한 방첩사 문건에서 검토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경찰청의 발령과 국회 통제는 방첩사가 사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밀하게 검토·계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위원님,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그 당시에는……

○추미애 위원 기계적으로 한 것이다? 인터넷에 있는 거 오려 붙였다?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아닙니다. 방첩사령관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저희에게 이 자료를……

○추미애 위원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뿐이다, 의도는 없다?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저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요구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비서실에 경찰의 비상업무 관련 규정을 뽑아 달라 해서 관련된 걸 뽑아 드렸고 거기에 나와 있는 총칙, 비상근무, 별표 1의 비상근무의 종류별 상황……

○추미애 위원 비서실이 1처장이 비서실장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이 따로 있어요? 귀관이 바로 비서실인데!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러니까 그때 이……

○추미애 위원 왜 유체이탈 화법을 써요, 비서실장이 본인이면서.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위원님,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사기관에서 밝히겠습니다. 여인형 사령관께서 관련된 규정을 뽑아 달라 해서 인터넷에 공개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뽑았고 뽑은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정리해 드린 부분입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 여부는 여인형 사령관께서 아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특전 1여단장님 준비 좀 하세요. 그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이상현 준장입니다.

○임종득 위원 출동 당시에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바가 뭐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비상계엄 선포 직전 보안폰으로 전화 오셨습니다. 2개 대대를 이용하여 국회로 보내 내부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까 특전사령관이 말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저는 그렇게 확실히 들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특전사령관, 끄집어내라고 하는 지시는 밑으로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 1여단장한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처음 지시할 때는 가서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 그리고 인원 들어오는 것들 인원 출입을 통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까 707단장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그냥 지시를 하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속기록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지금 1여단장은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최초에……

○부승찬 위원 최초. 최초하고 최후가 있잖아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최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점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득 위원 그러면 최후에는 지시를 언제 하셨어요?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언제 하셨냐고.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거는 대통령님과 국방부장관님께서 얘기를 해서 상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임무가 그때 있었고, 최초에 명령 하달할 때는 국회에 가서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고……

○임종득 위원 아니, 1여단장한테 언제 어떻게 지시를 했냐고 제가 묻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최초에는……

○임종득 위원 최초가 아니고 나중에라도 언제 지시하셨냐고요. 받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1여단장은 그 지시를.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것은 지시한 게 아니고 상급부대에서 ‘이런이런 말이 있는데’라고 전파했던 겁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1여단장, 지시를 한 게 아니라는데……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지시받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최초에 안보폰으로 그렇게 지시받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그것을 왜 제가 기억하냐면 제가 대대장들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임종득 위원 특전사령관, 1여단장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세요. 뭐가 맞는 이야기에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것을 제가 대대장들에 최초 명령을 줄 때 동일하게 지시를 했고 나중에 제가 국회 상황을 모르니 일단 국회에 가서 내가 차후 임무를 주겠다 이렇게 변경한 것을 저희 대대장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대대장도 들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대대장도 여기 와 있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1여단장이 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게 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최초에 제가 명령은, 최초의 명령은 국회에 가서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고 인원을 출입 통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초에 제가 명령 전파한 것은 국회에 가서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고 인원을 출입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종득 위원 그러면 1여단장한테만 지시를 했나요?

3여단장, 3여단장은 지시 안 받았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3공수여단장 김정근 3여단장입니다.

저는 VIP께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후 한 5분 정도 지나서 사령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명령을 접수하였습니다.

○임종득 위원 뭘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3공수여단장 김정근 저는 선관위에 1개 대대를 투입해서 차단하고 경계를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고 또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 1개 대대를 투입해서 차단하고 경계를 지원하라 이렇게 임무를 받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중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박안수 계엄사령관, 합참과 방첩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엄 연습을 하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합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계엄 포고문을 보니까 79년도 10·26 사태 이후에 합참과 방첩사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이런 동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때 문구나 지금 문구나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것을 보면 합참과 방첩사가 전혀 일을 앓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계엄사령관으로서 가장 중책에 있던 박안수 총장께서 왜 직무에 배제되고 있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박 총장은 12월 3일 16시에 장관하고 독대를 했고 21시 40분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튿날 계룡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동안에 내려가지 않았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왜 서울에 머물렀습니까, 그다음 날 일정이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6시에 뵈는 것은 월에 한 이삼 회 정도 하는 현안업무 토의 16시에 있었고 기계확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사령관이 또 거짓말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총장이 대여섯 시간을 대기시키면서 이유도 알려 주지 않고 또 그런 상태에서 21시 40분까지 대기하면서 담화를 보고 알았다,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 현안 4개를 보고드렸고……

○안규백 위원 총장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또 이 거짓말로 인해서 육군을 이끌 역량과 신뢰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차관님, 총장과 함께 방첩사의 주요 직위자들을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

시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관련 내용들 제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미상관법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계엄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고 그에 따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확인될 때까지 배제시키기 바랍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아까 본 위원에게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HID를 대기시켰으나 임무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보사에서 이번 작전에 동원된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HID가 총 몇 명이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5명입니다.

○김병주 위원 뭘 5명이야, 대대장도 있고 대장도 있었잖아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특수요원은 5명입니다.

○안규백 위원 선관위에 보낸 인원이 HID를 포함해서 5명입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선관위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총 10명이 있습니다. 선관위에는 제가 10명 보냈습니다.

○안규백 위원 말이 앞뒤가 다른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위원장님, 총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시간 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시간이 어떤 시간이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12월 3일 날 오후 현안업무 보고하고……

○위원장 성일종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때 4건의 보고가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이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늘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상은 현안업무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 16시에 잡혀져 있고 또 그다음 날 KAIST 등 여러 가지 일정이 계룡대에서 많았는데 그 계룡대의 중요한 행사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왜 서울에 있었냐고요, 계룡대에 안 내려가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게 보고드리고 나오는 중에 저녁 21시 40분에 대기하라 그랬고 그래서 그다음 날 아침 기차표는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규백 위원 총장님, 만절필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황하가 만 번 물이 흘러가고 꺾여져도 반드시 동해로 흘러가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만절필동이라는 말을 꼭 기

억하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지금 정보사령관이 10명이라고 해서 1193명입니다. 차관님, 정확한 추가적인 투입 인력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투입 인력 확인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육군참모총장님, 계엄법 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아시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모르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계엄법도 모르고 계엄사령관이 되셨습니까?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해서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이런 조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계엄사령관의 이런 특별조치권에 의해서만 국민들의 재산들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방금 들었습니다.

○허영 위원 그래서 제가 육군본부에 답변을 요청했는데 계엄법 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특전사령관의 707특임대가 국회 창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떤 명령체계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부수고 들어온 겁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지요. 무법이지요. 불법이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마 포고……

○허영 위원 계엄사령관은 처음 여기 나오셨을 때 TV를 보고 국회 진입 상황에 대해서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냐고 제가 물었을 때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얘기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그럴 때 왜 철수 명령 안 내렸습니까? 그때 특별조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도 없어요.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고.

TV를 보고 알아요? 여기 맨 처음에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변했어요, 특전사령관까지. 그런데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50명의 지휘관들이 앉아 있어요. 여기 중에서 TV 보고 비상계엄을 안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손을 드는 지휘관 있음)

창피한 줄 아세요, 다들.

아직도 계엄사령관은 TV 보고 알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허영 위원 그런데 왜 손 안 드셨어요, 뒤에 지휘관들은 다 들었는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뒤에 드는 줄 알고 있었습시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서 발언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수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의 유무 그리고 죄의 경중에 대한 것은 수사할 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국민들께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비겁해 보여요.

우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그 지시를 받고 내가 얘기할 때는 내 지시입니다.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에요. 내 지시입니다. 위에서 지시한 것을 받고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내 지시이지 상급자가 얘기한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육군본부의 참모총장님은, 부사령관으로 합참차장이 임명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엄사령부의 참모부는 누구예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구성 중에 있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육군본부 부장들은 됩니까? 계엄사의 참모부입니까,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예?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 당시 참모부 아니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참모총장님이 이 계엄령에 대한 사령관으로 임명받고 육군본부에 지시하거나 전달하거나 어떤 지침을 내린 게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합참 계엄과를 중심으로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면 내일 아침에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육군본부에 아무런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올라오면 증원하거나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제가 묻는 것은 계엄사령관이 되고 나서 육군본부 참모부에…… 참모총장의 부하는 육군본부 참모부장들 아니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맞습니다.

○**한기호 위원** 거기에 아무런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편성을 해야 되니까 올라올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올라올 준비를 해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와서 편성하게.

○**한기호 위원**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당시에 비상소집돼 있는 쪽에다가 옆에 있는 장군에게 얘기해서 전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작부장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육군본부는 실제로 나중에 올라올 준비를 했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했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나 준비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어설피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승찬 위원 예.

계엄과장님!

시간 멈춰 주시고요.

계엄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입니다.

○부승찬 위원 합참 직제령에 계엄 업무가 있지요?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방첩사 참모장님, 부대령에 계엄 업무 없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부승찬 위원 ‘예, 아니요’만 답하시면 됩니다.

없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부승찬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문건을 작성한 것은.

들어가십시오.

특수작전항공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멈춰 주세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입니다.

○부승찬 위원 잘 들으십시오.

602항공대대로부터 22시 49분경에 긴급 비행임무를 유선으로 접수했다고 수방사에서  
그래요.

요청한 적있지요, R75 지역 비행? 헬기 비행.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확인하겠습니다. 대대에서……

○부승찬 위원 비행제한구역에 대한 헬기는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방사에?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수방사 어디에서 받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그때 제가……

○부승찬 위원 합동방공작전통제소 맞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야만 R75에 들어올 수 있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승인권은 수방사에 있는 거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서 수방사는 승인을 안 해 줬지요? 보류했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행이 늦어진 거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이후에 특수작전항공단에서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다가 승인 건의 요청을 해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 소장이 왜 나오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이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인데 추가 확인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작성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대령 김문상’.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방사령관이 대신 좀 답변을……

○부승찬 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여기 공문으로 읽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끼어들어요?

‘이후에 수방사에서 승인을 보류하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안보폰으로 승인을 건의하였습니다. 차후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안보폰으로 12월 3일 화요일 23시 31분 경에 R75 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헬기의 R75 최초 진입 시간은 23시 43분경입니다. 작성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대령 김문상. 전화번호 02-524-3330’.

총장님, 월권한 거예요. 정보작전참모부장 공문이……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부승찬 위원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맞아요!

○위원장 성일종 수방사령관은 가만히 계시고 부승찬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필요하면 답……

○부승찬 위원 아니, 저는 수방사령관 답변 안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보십시오. 공문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러니까 부승찬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만 대답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기회를 드릴 겁니다.

○부승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내가 끼어들었으니까 1분 더 드리세요.

○부승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회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온 공문이에요, 공문. 공문서 위조이지요, 만일 이게 잘못됐다면?

총장님, 정보작전참모부장이 권한도 없는데 헬기의 R75 비행제한구역의 진입을 승인해줬어요.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수방사는 승인 보류를 했는데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 권한도 없는데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문서로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새벽 3시에 육군 부장들 버스에 타고 서울로 향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출발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이것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하시기 바랍니다.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저는 당시 현장에서 작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앞서 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R75는 저희가 평상시에 제 명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협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R75에 대한 권한의 통제는 수방사령관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 작전처장이 계엄사에 있는 참모한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온 문서였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총장님.

○부승찬 위원 더 문제예요, 그러면. 아예 권한도 없는, 수방사는 그래도 계엄사가 아니면 권한이라도 갖고 있잖아요. 아예 권한도 없는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이걸 승인했어요. 이것만큼……

○위원장 성일종 박안수 총장님, 아까 하시려고 할 때 뭔가 있으셨는데 제가 그걸 끊었거든요.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뭘 좀 요청하셔서 제가 그때 끊은 게 기억이 나서, 혹시 빠진 것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위원장 성일종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금 부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그렇게 하십시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지휘통제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 있었을 때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시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가는지, 도착지가 어딘지 이런 내용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연락이 막 왔습시다. 그 상황에서 저는 위에 보니까 작전이 막 전개되고 있고 저희들은 C4I가 없는 상태에서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긴급상황이라 들어가는 헬기인가 보다. 알았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서 아마 승인돼 내려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 끝나셨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던 것도 그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위원 더 문제예요, 더. 더 문제잖아요, 그러면. 계엄사가 꾸러지지도 않았는데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비행제한구역에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줘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본인이 아셨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제가 전화 받았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 그러면 계엄이 되는 걸 안 거지. 아닙니까? 참, 지금 이게 뭘지 구분을

못 해, 지금.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니, 말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했어도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성일종** 아니, 부승찬 위원님, 충분히 드렸고요. 마무리하십시오.

○**부승찬 위원** 마무리할게요.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계엄사가 아직 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한테 지시하는 것도 법적 권한이 없어요. 이것 불법이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때는……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러면 정보작전참모부장 인사명령을 갖고 와요.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용기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병들,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전두환이 되지 마십시오. 사후라도 장태완 장군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전사령관님, 대통령 윤석열이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이 증언이 중요한 겁니다. 계엄을 1일 날 알았는지 2일, 3일에 알았는지 이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오래전부터 계엄이 준비된 사실을 알지는 않았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예.

○**황희 위원** 수방사령관님, 맞습니까?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오래전부터 계엄이 준비됐다 그 자체는 몰랐다는 거지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방첩사 1처장님, 그런 말 많잖아요. 수방사 사령관, 특전사 사령관이 방첩사를 방문한 것도 되게 이례적인데,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실장 시절에도 방첩사 사령관하고 맨날 만나고 이러니까 모두가…… 그리고 실제 비상계엄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기획하고 모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라면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 계엄사 합수단이 FTX 올 3월에 했잖아요. 훈련을 했잖아요, 방첩사에서. 방첩사에서 한 게 연병장에 모여 가지고, 물론 병력 이동은 안 했지만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런 훈련 한 적이 없잖아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예, 정확히 맞습니다. 합수본부 운영에 관련된 인원 편성……

○**황희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연병장에 모여서, 이동은 안 했지만…… 이걸 왜 했어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전시 전환에 관련된 사항 관련해서……

○**황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올해 했냐고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전시 전환 관련돼서……

○황희 위원 그것 모르는 거예요? 왜 했는지 몰라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것은 정확히……

○황희 위원 그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저희 부대원들에게 사령관이 교육한 것은……

○황희 위원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부대원들에게 교육한 것은 전시 전환 절차에 관련돼서 지금 확인해 보니 이게 너무 취약하다라고 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한 것으로 교육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희 위원 알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님, 이 포고령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와 문장 이런 게 군에서 자주 사용하던 겁니까? 갑자기 의료 관련해서 안 오면 차단하겠다 이런 게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특히 윤석열 정부가 ‘머리 복잡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짹 다 정리해’ 이랬다면 서요. 사령관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짹 다 정리해’ 이랬다면 서요.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복잡한 내용들이 포고령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군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군 외부에서 작성한 겁니까? 참모총장 생각이 어떠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희 위원 군에서 자주 쓰는 용어예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군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황희 위원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특전사령관님, 민주당 당사는 어떤 병력이 들어왔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1공수여단에서 1개 대대가 임무를 부여받고 구성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병력들이 당사 안으로 들어갔었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아닙니다. 가지도 않고 중간쯤, 제가 어느 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 역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임무 중지하고 복귀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민주당사 확보하라고 했을 때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중립 위반인데 뭘 생각이 들었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국회하고 좀 비슷한 성격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윤석열 씨가 전화를 했잖아요. 정족수가 아직 안 찼으니까 끌어

내라 이런 얘기…… 정족수 얘기를 했지요, 안 찾다고?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예.

○**김병주** 위원 참 의아해요. 제가 그때 현장에서 정족수가 한 130명 됐을 때 찾는지 안 찾는지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정족수가 안 찾는지 알까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진짜 의심스러운데, 그 안에는 특수부대가 안 들어와 있었지요, 특전사?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거기는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김병주** 위원 CCTV 이런 것도 확보가 안 돼서 안을 못 봤잖아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 안에 분명히 아무도 안 들어갔고 그때 당시 제가 전투통제실에 있었는데 전투통제실 왼쪽 화면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화면들이 쭉 비쳐졌었는데 그때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모습들이 비쳐진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화면, 장면이 어떻게 보이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회의사당 전체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모습들이 YTN으로 보도가 된 화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명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보면, 분명히 이것은 추정컨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한번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얘기한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장관대리, 1호기가 이번에 이륙을 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대통령 도피를 위한 연습을 한 건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닙니다. 계획돼 있는 자체 정비 비행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자체?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얼마에 한번씩 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정확한 주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에 계획돼 있는 정비 운항이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계엄사령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 군단급과 포스타가 지휘하는 데는 지구계엄사령부고, 지역계엄사령부 다 만들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다 만들어지지는, 최종보고는 못 받았고 중간보고는 만들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지구계엄사령부가……

1분만 더 줄래요?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구계엄사령부가 2개고……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매번 오래 쓰시고 계십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지난번에 지역계엄사령부 몇 개 구성됐다고 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는 제가 몰라서 한 열몇 개 그랬는데 한 스물몇 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전군이 계엄에 동참했다는 거 아니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전국비상계엄……

○김병주 위원 군단급 이상 전군이.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전국비상계엄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참……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이거 어떻게 하지요? 전부 다 여기, 군단급 이상은 전군이 참가했는데 장관대리, 전부 다 거기에 참가했다는 거는 내란죄에 다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관련 내용들은 더 확인이 되고 또 조사가 되고 수사가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수사가 되는데 장관대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하지요. 어쨌거나 여기에 가담한 거는 군단급 이상 전 제대가 다 가담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반기를 든 군단이나 부대 어디 있습니까, 반기 든 부대가 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계엄사에서 운용됐던 예하 지역계엄사까지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김병주 위원 계엄사령관, 반기 든 부대 있나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특별히 그런 건 없었지만 아마 만들고 있는 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종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물론 단순 가담이나 그렇게 되겠지만……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아이고 참……

윤석열! 참으로……

김용현!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내란 수괴, 전군을 이렇게 만들어서 돼요? 군단급 이상 전 부대가 여기에 가담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게 경고했는데 뭐 했습니까? 진짜로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이제승 드론작전사령부 정작처장,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드론작전사령부정작처장 이제승 정작처장 이제승 대령입니다.

○박범계 위원 북한 드론기 운용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지금 드론사령관의 말인데 본인도 그렇습니까?

○드론작전사령부정작처장 이제승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거는 그러면 부인하는 건 아니지요?

○드론작전사령부정작처장 이제승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들어가세요.

잠깐 멈춰 주시고요.

드론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입니다.

○박범계 위원 여러 분들이 물으셨지만 역시 NCND, 확인해 줄 수 없다?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박범계 위원 저작사 예하에 드론봇 부대가 있습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부대는 아니……

○박범계 위원 아니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박범계 위원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저작사 예하에 드론봇 전투단이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드론봇 전투단에서 드론을 북한으로 운용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들어가십시오.

잠깐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 사령관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이 운용하는 소위 정찰용무인기가 S-BAT 맞습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그렇게 저희는 부르지 않고……

○박범계 위원 뭘로 불러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형 정찰드론 이렇게……

○박범계 위원 그걸 영문으로 S-BAT.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영문자로는 저희가 명칭을 안 사용해서……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하든 안 하든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맞습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잘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지난번 국군의날 때 우리 보여 줬던 그 드론 있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박범계 위원 이것이 굉장히 정찰에 적합하지 않은 무인기다, 고도가 높아도 소리가 쉽게 들려서 발각되기 쉽다, 맞습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고도에 따라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들어가세요.

1분 더 주실 거지요?

○위원장 성일종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준비하고 나오세요. 나승민 실장, 신원보안실장이지요.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방첩부 신원보안실장입니다.



○박범계 위원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이지요?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예.

○박범계 위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 만들 때 관여했지요?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17년도 당시에 저는 신원보안실에서 신원 업무를 했습니다. 작성하지 않았습시다.

○박범계 위원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예, 그때 TF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박범계 위원 이걸로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없습니다. 그때 했던, 원복될 때 원복되지 않고 안보지원사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들어가세요.

박성하 실장!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예, 기획관리실 박성하 대령입니다.

○박범계 위원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하고 친하지요, 그렇지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알게 됐습니다.

○박범계 위원 원래 알지 않았어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예.

○박범계 위원 충암고 나오셨지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예.

○박범계 위원 소위 충암고 인맥 아니에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충암고 나왔는데 충암고 인맥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충남고예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충암고라고 얘기 나오는 그분들하고 저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에 여인형 사령관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박범계 위원 일방적인 얘기이고.

들어가세요.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김철진 군사보좌관!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예, 군사보좌관입니다.

○박범계 위원 김용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으로 언제 보임 받았습니까?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9월 6일 파견으로 보직을 받았고 실제 보직은 11월 26일부터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 후임이 아까 박성하 실장이지요? 군사보좌관 원래 기획관리실장이었잖아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은 8월까지 임무 수행을 했고……

○박범계 위원 그러다가 후임이 박성하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12월부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다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할게요. 들어가세요.

국방부 조사본부장, 아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쓰던 안보폰, 보안폰 관련해서 조사

본부장께서, 지금 검찰단장이 직무 배제돼 있으니까 서버 압수수색할 생각이 있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 아까 차관께서, 직무대행께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본부장,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예, 저희가 주도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보안폰하고 서버에 대해서 증거 보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방금 김철진 군사보좌관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예, 군사보좌관입니다.

○박선원 위원 김 보좌관은 진급 예정자이지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예, 진급 예정자입니다.

○박선원 위원 인생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시겠네요. 그렇지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지통실 결심지원실에 국회법 법령집 왜 갖다 주셨어요? 누가 갖고 오라 그랬어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당시에 잠시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제가 나와서 저희 해당 과장에게 법령집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다렸다가 법령집을 받아서 다시 안에 넣어 드렸습니다.

○박선원 위원 몇 시예요, 1시 40분이었나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1시……

○박선원 위원 결의안 통과된 직후예요, 직전이에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대통령님께서 오신 시간이 이후이기 때문에 1시 30분, 40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때 육군총장이 있었고 국방부장관이 있었지요, 결심지원실에?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그 안에 처음에는 여러 분이 들어가셨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따라 들어가서 끝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정확한 인원들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중간에 법령집들이 나왔고……

○박선원 위원 이 자리에 합참의장은 없었고, 그렇지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의장님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박선원 위원 김명수 의장을 기억하지 못해요? 키도 비슷하고 모를 수가 없으실 텐데……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안에 들어갔을 때 제 자리가 칸막이가 있는 맨 끝자리이어서 안에 계신 분들을 정확하게는 볼 수가 없었고……

○박선원 위원 합참 지통실, 결심지원실 평소에 이곳에서 임무 수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법률적으로?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법률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선원 위원 국방부차관이 가서 여기서 근무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정진팔 차장이예요 아니면 합참의장이예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결심지원실의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않은데 특별한 회의가 있거나 화상회의가 있거나 하면 쓰는 곳인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중지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대령 나와 주십시오.

○육군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입니다.

○박선원 위원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직접 관리하세요?

○육군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대대장이 있고 대대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이진우 당시 사령관이 이곳에 왔을 때 단장은 왔어요, 안 왔어요?

○육군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제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육군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최초에는 초동조치팀 9명하고 특임중대장 그리고 모터사이클(MC) 2대 그리고 제가 따라 왔습니다.

○박선원 위원 총 몇 명이 갔어요? 임무가 뭐였어요?

○육군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당시에 제가 늦게 부대에 복귀해 가지고 임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니까?’라고……

○박선원 위원 체포조였지요?

○육군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아닙니다. 체포……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특전사가 국회의원들 끌어내면 차에 실어서 과천의 방첩사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다 놓는 체포조지요?

○육군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바가 없고 그런 임무를 하도록도 안 돼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군사경찰이 거기 무슨 이유로 갔습니까?

○육군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제가 임무를 부여받지 못해서 국회라는 곳만 알고……

○박선원 위원 현장에서 이진우 장군한테 무슨 지시 받았어요?

○육군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제가 도착한 시간이 12시 02분~03분쯤이었는데 휴대폰으로 사령관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사령관이 대통령한테 지시 받았는데 여기 바로 이곳에서 그 지시받고 단장은 무슨 지시를 밑에 직원들한테 내렸어요?

○육군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위원님, 제가 양쪽 다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양쪽 다 가서 진술을 하고 왔는데 통신 내역이 있습니다, 녹음 내용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 2분경에 전화를 사령관님께서 하셔서 처음에는 ‘내가 여기 있거든.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MC 있잖아, MC는 국회 외곽으로 순찰을 돌아라. 그리고 순찰을 돌다가……’.

○박선원 위원 그런 소리 마시고 이 사령관……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본청 앞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저는 경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진입, 들어갈 수가 없었고……

○박선원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할 때 밖에 있었어요? 무슨 지시 받았어요?

○(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대통령님께서서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밖에서 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차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제가 용어 정의 때문에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차관님하고 총장님 나와 계신데 아까 김병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계엄이 군단급까지 가담을 했다 그러는데 계엄이 내려가니까 가담한 거는, 출동한 부대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대들은 명을 받아서 준비하거나 그 부대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무슨 출동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요, 가담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경계를 강화하거나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 부대들이 무장을 하고 명을 받아서 어디 떠날 준비까지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런 것까지 다 수명을 했나요,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계엄사 예하 지역계엄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공공 계엄이었으면 아마 계엄사 계통을 위해서, 계엄사는 통상 해당 부대들이, 군단급 부대들이 지역계엄사령부가 되기 때문에 군단 사령부 내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지금 4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관계관들도 그렇고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회의중지)

(2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추미애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세요.

○추미애 위원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경민 참모장 나오세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추미애 위원 정성우 처장하고 여인형 사령관 집무실로 간 적 있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언제쯤인가요?

(성일종 위원장, 강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당일 2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갔습니다.

○추미애 위원 당일 말고 그 전에.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그 전에는 업무상 둘을 부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언제쯤, 자주 불렀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종종 부릅니다. 그때가 정성우 1처장이……

○추미애 위원 최근에 자주 불렀잖아요. 아까 얘기한 이삼 주 전부터 자주 불렀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아닙니다. 이삼 주 전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이삼 주 전부터 더 자주 부르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니까 정성우 처장이 이삼 주 전에 비상업무 규칙 만들어라라는 지시 받았다고 하는 얘기 들었지요? 그 무렵도 이경민 참모장도 같이 있었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없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때 토의하지 않았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안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이 계엄 상황 다 토의하지 않았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비상계엄 업무 계획 만들어라’ 이런 토의는 저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당일 9시 반 얘기하는 겁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당일 9시 반도 같이 들어갔었고 그 전에도 가끔씩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당일 말씀이십니까?

○추미애 위원 예.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당일 아침에 지시하셨던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그다음에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관련해서 상황이 심각하다, 북한 상황이 안 좋다……

○추미애 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계엄 관련 토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계엄 관련 토의는 한 적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10시 23분에 윤석열이 계엄 담화 발표한 것 같이 봤습니까?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때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합수부 설치하라 그런 명을 받았지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지시받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지시받은 것은 계엄 선포 이후에 VTC, 지휘통제실로 내려오면서 영외 거주자 소집하라, 주둔지 방어 태세 격상하라, 요인 경호 시행하라, 그 세 가지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외 거주자 소집과 주둔지 방어 태세 격상은 당직총사령한테 다시 지시를 했고 요인 경호는 제가 참모장이 된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요인 경호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경호경비부대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혹시 장관님 경호 기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경호 기능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길래 제가 ‘그러면 요인 경호가 뭐냐, 그러면 사령관님 경호를 의미하냐’ 그랬더니 ‘예, 사령관님 경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 시간부로 요인 경호 시행하라’ 그렇게 경호경비부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들어가세요.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예.

○추미애 위원 김철진 군사보좌관 나오세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예, 군사보좌관입니다.

○추미애 위원 김철진 보좌관은 김용현 장관의 그림자 수행 역할을……

위원장님, 조금 더 주시지요, 기왕 불렀으니까.

○위원장대리 강대식 이번에 하고 그만하시렵니까?

○추미애 위원 아니, 기왕 불렀으니까, 앞에 나왔으니까 문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대식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김용현 장관 그림자 수행을 하는 처지요, 군사보좌관이니까.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예, 군사보좌관 임무를 수행합니다.

○추미애 위원 자주 전화를 바꿔 준다고 하던데, 그렇지요? 당일 날은 김용현 장관이 누구와 무슨 내용의 통화를 했습니까?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어느 시점을 여쭙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기억나는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12월 3일 당일.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12월 3일 당일……

○추미애 위원 예, 12월 3일 당일.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하루 종일 중에 어느 시점을 정해 주시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중에 시점을 조금 한정해 주시면……

○추미애 위원 12월 3일 중 저녁 무렵.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저녁 무렵에 장관님께서 대통령실 회의가 있다고 18시 40분에 집무실에서 출발하셔서 이동하셨고 대통령 담화문이 나온 그 시점……

○추미애 위원 대통령회의에 갔더니 장관이랑 누가 있었어요, 대통령이랑?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출발하시면 저는 집무실, 사무실에 대기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알았어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다시 도착하신 시간은 대통령님 담화문 발표 직후에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신다고 복귀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저는 같이 함께하지 않았고 지휘통제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합류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추미애 위원 그러면 장관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누구예요?
-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어느 시점의 장관님 마지막 통화를 말씀하십니까?
- 추미애 위원 보좌관하고 헤어지기 전에, 아까 지휘통제실 내려가기 전에.
-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집무실에 계시다가 나오시면서 제가 차량 출발하시는 데까지 모셨기 때문에 집무실 안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어느 분과 통화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 시점에 전화를 연결하라고 하신 것은 없었고 통상의 전화는 전속 부관을 통해 연결하라고 하십니다.
- 추미애 위원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 통화 연결했지요?
-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 전화를 그날 제가 연결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 추미애 위원 계엄 발령 언제 알았습니까?
-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저는 대기실에서 보고 있던 여섯 분과 함께 담화문 보면서 알았습니다.
- 추미애 위원 계엄 준비 언제부터 했습니까?
-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계엄 준비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 추미애 위원 논의를 누구하고 주로 했습니까?
-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제가 논의한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 위원장대리 강대식 추미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추미애 위원 예, 들어가세요.

- 위원장대리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임종득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득 위원 참모총장님, 계엄사령부가 개소된 시간이 몇 시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다음 날 03시 어간으로 추정됩니다.
- 임종득 위원 03시입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 임종득 위원 그러면 해제된 것은 몇 시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해제는 그 앞에 한……
- 임종득 위원 해제되고 개소를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 임종득 위원 그러면 지역 및 지구 계엄사는 언제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지시한 것은 아니고 중간보고 개념으로 확인했습니다.
- 임종득 위원 아니, 지시도 없이 중간보고가 되나요? 무슨 뜻이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따로 지시 내린 건 없었습니다.
- 임종득 위원 지시도 안 했는데 스스로 지구 및 지역계엄사가 창설이 되나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통상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연습을 하면 지구·지역계엄사가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 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시는 안 내린 상태에서 그냥 평상시에 훈련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계엄사령부 개소가 지금 03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지구·지역계엄사 설치 지시도 안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가담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연습을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특전사령관!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임종득 위원** 12월 3일 당일 날 특전사 전투통제실에 있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계속 거기 있었나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작전 지휘하는 중간 중간에 제대로 작전이 진행되지 않자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빨리 하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요. 사실입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제가 욕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헬기 문제 때문에 안 가는 상황, 위에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왜 안 가느냐고 몇 차례 다른 소리보다 조금 크게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사령관이 작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아쉬움을 표했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요?

1여단장!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예, 1공수특전여단장입니다.

○**임종득 위원** 사령관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혹시 있었던 일이 있나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처음의 명령은 아까 보고드렸던 그것이었고 출동 준비 태세부터 국회 이동 간 빨리 가라고 재촉도 받았고 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707특임단이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습시다.

○**임종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대식** 1분 더 드렸는데요.

○**임종득 위원** 아, 1분 더 주셨어요?

특전사령관, 지금 특전사령관이 오늘 여기 와서 발언하는 내용하고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전투통제실에서 주고받은 내용, 거기에서 본 제보들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상충이 돼요, 상충이. 어느 쪽이 맞는 거고 어느 쪽이 특전사령관의 본심이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본심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신지……

○**임종득 위원** 작전이 제대로 안 된다고 욕하고 다그치고 하는 마음하고 지금 작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치했고 내가 다 그것 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이동을 지시했을 때는 현장에 빨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뭘 위한 이동인데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 임무……

○**임종득 위원** 뭘 위한 이동인데 그렇게 다그치고 욕을 하고 해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욕하지 않았습시다.

○**임종득 위원** 다 부하들이 보고 있잖아요, 부하들이.

○**위원장대리 강대식** 정리하세요.

○**임종득 위원** 부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강대식**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차관님, 폐일언하고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전혀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그것이 맞습시다.

○**안규백 위원** 장관께서 주요 사령관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이 계엄의 사태를 확대 재생산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노영훈 군사기밀실장님!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국군방첩사령부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입니다.

○**안규백 위원** 얼굴을 보니까 옛날 17년 전 김종태 기무사령 부관 아니에요?

○**국군방첩사령부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그때 수행 부관을 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부관 했지요?

○**국군방첩사령부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맞습시다.

○**안규백 위원** 얼굴이 기억이 나네.

B-1 병커를 샀었잖아요, 김보현 소령하고.

○**국군방첩사령부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예, 맞습시다.

○**안규백 위원** 가서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을 수용할 만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언제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제가 집에서 과천 사령부까지 1시간 거리에 이격이 돼 있다 보니까 당일 날 11시 20분경에 사령부에 도착한 이후에 비서실장으로 부터 급히 지휘부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올라가서 사령관으로부터 B-1 병커로 가서 구금……

○안규백 위원 그때가 몇 시예요?

○국군방첩사령부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제가 한 11시 반경에 직접 지시를 받았고 당일 한 00시 20분경에 수방사로 도착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B-1 문서를 둘러보면서 구금시설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박안수 총장님, 답변에 치명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요. 16시에 장관 독대를 했고 당시 21시 40분까지 장관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안규백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내용이 좀 이상한 것이, 대기실에 대기하라는 이유가 뭐지요? 이등병도 아니고 일반 병사도 아니고 36만 5000명의 장수인데 아무 이유 없이 애들처럼 대기해라? 문제 제기를 앓고 있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문제 제기하지 않았고……

○안규백 위원 그냥 6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안규백 위원 누가 보더라도 14~16시에는 계엄을 주지시켰고 계엄 즉시 움직이기 위해서 지근 거리에서 대기시킨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닙니다. 그때……

○안규백 위원 아니, 애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등병 일등병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육군총장을 대기시켜라? 내일 신도안에서 일정도 많은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 좀 바쁘셨고……

○안규백 위원 예?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가져온 걸 많이 바쁘셔서 보고도 정확하게 받지 못하셨고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시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16시에 그랬었습니다, 상황이.

○안규백 위원 그러고 나서 5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대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무슨 이유로 대기를 하나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안 물어봤습니다.

○안규백 위원 애들도 아니고 말이지요, 육군총장을 아무 이유 없이 대기하라는 얘기에요? 이해가 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21시 40분까지 오라는 이유가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대리 강대식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김세운 대령 나와 계신가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예.

○허영 위원 거기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지요.

12월 3일 밤 충북 음성군 항공단에서 출발해서 707특수임무단 특전사를 태우고 국회로 이동하던 중 서울 상공을 진입하는 단계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공중에서 10분 정도 대기했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 대기는 왜 대기를 하게 됐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서울에 진입을 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허영 위원 그게 P73 지역 공역관리여서 공군작전사령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수방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영 위원 수방사 승인을 받으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예, 그때 저희가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광주에 소재한 특수전 학교에서 불시에 항공기 출동 훈련을 한다고 상정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기하다가 그 비행금지구역 비행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저는 수방사 쪽으로부터 진입해도 된다고 최종……

○허영 위원 수방사 누구로부터 그런 승인을 받은 겁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제가 직접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것 확인을 안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예, 그렇습니다. 승인이 됐다는 것만 저한테 중요해서……

○허영 위원 박안수 참모총장님, 이것 누가 승인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허영 위원 이것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국민 안전과 유혈 사태 방지 또 경찰 우선조치 때문에 군은 최소한으로 1시간 이후에 투입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과……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처음 듣습니다.

○허영 위원 처음 듣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시간 늦게 투입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특전사령관?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허영 위원 그런 지시를 김용현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허영 위원 없지요?

항공단장도 마찬가지지요?

(강대식 간사, 성일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예, 처음 듣습니다.

○허영 위원 처음 듣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들도 철저하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허영 위원 그리고 1공수여단장님, 지금 민주당사 임무에 1개 대대 정도인데, 몇 명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1개 대대, 130여 명입니다.

○허영 위원 130명입니까? 이게 추가적인 인원이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여론조사꽃은 누가 갔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9공수여단장 **안무성** 9공수 특전여단장입니다.

○허영 위원 몇 명 갔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9공수여단장 **안무성** 1개 지역대 규모……

○허영 위원 몇 명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9공수여단장 **안무성** 50~60여 명 수준입니다.

○허영 위원 정확한 인력 보고해 주십시오.

○육군특수전사령부제9공수여단장 **안무성** 제가 기억하기로는 54명인데 거기에 대대장이 일부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 5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총장님, 총장님은 계엄군 지정을 건의했습니까, 대통령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건의한 적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없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부승찬 위원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을 반란군으로 만든 내란의 수괴들입니다.

보십시오. 합참 법무실 법무검토에 따르면 ‘계엄군 운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제6조 1항에 의거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게,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계엄군 지정·운용에 대하여 건의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합참 법무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반란군으로 만들었어요, 반란군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계시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못이 없는데 그 두 인물 때문에 반란군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합참의 질의 내용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보작전참모부장, 대통령에게 계엄군으로 지정 건의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부승찬 위원** 그래서—비행제한구역이지요—R75 여기 승인은 수방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보작전참모부장이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장님께서 새벽 3시에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버스로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30분만에 복귀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1시 반 대통령이 올 때부터 3시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과연 무슨 작당을 했을까 의문이 생기겠지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죄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억울한 희생자들, 피해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윤석열 김용현 두 인간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해자가 돼 버리는, 반란군이 돼 버리는, 계엄군이 아니라 반란군이 돼 버리는 이런 한심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합참에서 법무검토가 나온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고개 몇몇이 드세요. 사법적인 심판은 받겠지만 죄인들이 아니에요. 국군통수권자, 장관 이 내란의 수괴를 만나서 희생되신 분들이에요. 절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1공수 여단장.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예.

○**부승찬 위원** 고개 몇몇이 드세요. 잘못 없어요. 왜 약한 마음 가지십니까?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포고령, 여기서 누가 작성하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고령은 나갔는데 아무도 몰라.

절대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윤석열 김용현 이 내란 수괴들이 여러 분을 반란군으로 만든 겁니다. 몇몇해지시고요 모든 걸 얘기해 주세요. 그게 군이 사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제가 알기로 미국에 보면 통상적으로 포로로 잡힌 경험이 있는 병사들은

가급적이면 장군 승진을 잘 안 시킨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포로로 잡힌 과거 경험 때문에 무리하게 작전을 운영해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상당히 친민주당적인 분이었어요. 민주당 정권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해 볼까 아주 용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권이 바뀌니까 무리하게 뒤흔 거예요, 무리하게. 경호실장 한 사람들 장관 시키면 안 된단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청문회 때. 대통령 안위를 생각하던 사람이 어디 갑니까? 국민 안위, 우리 장병들 안위, 안중에 있습니까? 오로지…… 이 비상계엄이 왜 생겼어요? 윤석열 김건희 수세에 몰리니까 야당 탄압하고 국민 억압하려고 발동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 당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다 나왔잖아요. 명령권자 나왔잖아요.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 이것보다 더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재판도 필요 없어요. 이런 것 재판하면 뭐 합니까, 시간 들여서?

이제 남은 것은 목적이에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을 아무리 추정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고령입니다, 포고령. 이 포고령이 불법의 핵심이에요. 비상계엄도 전시·사변이라서 하면 안 되는 건데 기본권 제한하고 사법·행정 다 장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유일하게 국회가 안 되니까 포고령으로 국회까지 장악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고령 문구를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국방위에서 간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 군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4대 개혁 한다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의료개혁하고 노동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이것 아닙니까? 포고령에 보면 나오잖아요. 파업·집회 그다음에 의사들, 갑자기 생똥맞게 의사들 왜 와 가지고 안 되면 차단한다 그래요? 말이 무섭잖아요, 차단한다.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 국회, 민주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 그대로 본인이 했어요,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자. 이게 포고령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포고령을 군에서 작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이 충암고등학교 동문회 말고 이들을 같이하는 무슨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밝혀내야 돼요. 이제라도 우리 군이 여기 당할 뻔한 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포고령 작성자가 누구고 이걸 철저히 규명해야 국민들도 앞으로 더 안심하고 살고 그다음에 우리 군도 앞으로 이런 불명예에서 더 빠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포고령 작성자 저는 군내에서 추적하고 추적하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포고령 작성자는 분명히 지금 이 장면을 TV에서 보면서 실실 웃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전체 하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늘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아이고 참……

특전사령관님, 윤석열 씨가 전화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할 때 수단으로 도끼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도끼라는 언급이 있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 용어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을 때려 부수고까지는 알겠는데 그 앞의 용어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때려 부수고요? 그 옆에 들었던 분들 중에 도끼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 용어는, 제 머릿속에 그 단어는 기억이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707여단장, 어떻게 들었나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런 용어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국방장관대행!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김병주 위원** 김동혁 준장, 박헌수 소장!

김동혁 먼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사실 수사가 지금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라든가 여러 기관의 수사가 신뢰가 많이 떨어져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 조작을 해서 윤석열 씨를 어떻게든 면제부를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기 참가한 사람에 덮어씌울 수가 있어요. 나머지 기관도 마찬가지로요. 경찰도 그와 관련돼 있고, 경찰청장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원들을, 특히 부대 병력을 출동시킨 지휘관들하고 참가한 분들을 군 검찰하고 군경찰에서, 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내일부터 내일모레 빨리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상설특검 통과되고 일반특검이 되면 그 수사기관에 있는 자료를 다 넘기게 되니까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조작을 하더라도 군에서 제대로 받은 거가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그나마 왜곡이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단장, 어떻게 생각해요?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게 하겠다?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조사본부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마이크 대서 하겠다고, 할 수 있지요?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 그렇게 임무 주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무 부서가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 관련돼 있는 군검찰이나 수사본부가 이것을 수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최초로 그걸 배제하고 외부 기관의 수사에 저희가 적극 협조하고 동조하는 개념으로

제가 임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우리 군검찰이 가 있고 또 경찰이 압수수색 할 때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다시 수사를 하라 하시는데……

○**김병주 위원** 아니, 참고인 할 수 있지요, 지금은 모든 기관이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인원들이 일벌백계해서 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왜곡돼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조만간에 특검이 되면 다 자료 넘길 거예요. 지금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전방에 있는 부대들도 군단급이 다 가담이 된 걸로 법적으로는 보일 텐데 병력이 출동한 부대로 좀 국한하도록 차관님은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병사들 그리고 초급 간부들, 그냥 명령에 의해서 따라가서 이렇게 억울하게 된 사례가 많으니까 이런 인원들은 좀 선처가 될 수 있게 차관도 열심히 노력하세요. 우리 정치권에 서도 그런 범위에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국방위원장님, 저한테 시간 통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이미 1분을 더 드렸습니다.

○**부승찬 위원** 1분 더 줬어.

○**김병주 위원** 더 줬는데 적극 노력하시라고요.

그리고 빨리 군을 안정시키려면 윤석열 씨, 지금 욕이 절로 나오는데 빨리 탄핵해서 대통령 직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군이 안정되고 국민이 안정되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성일종** 이따 또 드릴게요.

○**김병주 위원** 지금 전방에서 병력 이동을 좀 최소를……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제가 특별 부탁한 거예요.

○**김병주 위원** 그래요? 특별 부탁해도 돼요. 병력 이동이……

○**위원장 성일종** 제가 또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정리해 주세요.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추가 줄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예, 도와드릴게요.

박선원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차관님, 어찌 됐든 서버 보존이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조사본부를 시키세요, 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고.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아까 말씀하셔서 확인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가 제보받은 것은 지금 주역으로 등장한 인물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방첩사 그다음에 특전사 그다음에 수방사, 3사 사령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계엄과 관련해서 머리를 쓸 만한 곳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충암파로 연결되는 곳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떠어떠한 지시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 언론보도, 여인형 장군이 인정한 보도 이런 등등을 하면 특전사와 수방사는 손발이 돼서 움직인 집행 군인이라고 한다면 머리를 쓸 만한 데가 방첩사밖에 없어요. 방첩사 1처장 지금 중앙선관위원회 그 애기도 다 했고 법무실도 얘기했고 그래요.

그래서 방첩사에서 드론이든 뭐든 이런 기획들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사가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드론사, 저는 아까 새로운 얘기를 또 들었는데 저작사 예하의 드론봇 전투단, 어쨌든 드론사가 집행을 했다 이게 저한테 된 제보예요. 잘 모르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아마 그게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드론을 북한에 운용한 거는 NCND, 절대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건 인정한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신문을 해 본 사람이고 재판을 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인정한 거예요. 다만 군 기밀 취급상 인정하지 못하게 돼 있겠지요.

아까 박성하 실장, 이리 나와 봐요.

방첩사의 조사과장으로 있었지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예, 그랬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이전 조사과장이 누구예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정성우 대령입니다.

○**박범계 위원** 준장이지요, 그렇지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예.

○**박범계 위원** 정성우 그다음에 박성하 실장, 그랬지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예.

○**박범계 위원** 그다음에 승진을 해 가지고 이제 실장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그전에 5군단……

○**박범계 위원** 거기 갔다 왔지요? 저작사……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그다음에 저작사 그다음에 12월 3일 날……

○**박범계 위원** 사령관 취임 후 처음 봤다 할 때 여인형 사령관은 거기에 근무했으니까 처음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충암파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용현 장관을 나는 처음 봤다는 그런 취지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김용현 장관은 전에 본 적이 없고……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예, 그렇습니다. 여인형 장군도 취임하신 후 처음 봤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22년 9월에, 당시 여인형 사령관이랑 그다음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랑 식사했잖아요.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박범계 위원** 식사 안 했어요?

-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저는 들어 본 적도 없고……
- 박범계 위원 그렇게 제보가 왔어요. 제보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 드릴까요?
-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예, 알려 주십시오.
- 박범계 위원 아니에요?
-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예, 전 취임한 이후에 전화번호도 여인형 사령관 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 박범계 위원 이 표현, ‘그렇게 모른다고 하는데요?’ 했더니 ‘에이, 거짓말이지’.
-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알려 주십시오.
- 박범계 위원 내가 왜 알려 줘요?
-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알려 주신다고 좀 전에 말씀……
- 박범계 위원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알려 주냐고.
-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거짓말이 아닙니다.
- 박범계 위원 그래요? 맞다고 하는데……
-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조사 받으면 나와요.
-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예.
- 박범계 위원 그래요?
-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제 핸드폰에 여인형 사령관을 처음……
- 박범계 위원 ‘핸드폰을’ 바로 그게 범인이예요. 핸드폰에……
-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처음 저장한 날짜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박범계 위원 밥 먹었다는 거를 핸드폰에,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라고 핸드폰에 한 때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근거를 안 댑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로기 때문에, 없을 무이기 때문에.
-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일방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박범계 위원 제 핸드폰에 밥을 먹었다라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에요.
- 국군방첩사령부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일방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박범계 위원 들어가세요.

.....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영 위원 1공수여단장님,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의 생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저희가 수개월 전부터 사령관으로부터 북한 의 국지 도발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들었고 그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주에 저희 1개 대대가 제주도 갈 예정이었었는데 그것도

취소해라, 역내 전환으로 다 대기해라, 이번 주에 도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수차례 경고를 받았습시다.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와 민주당사를 나왔지만 저희는 국지도발 또는 내란사태로 이해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지휘관과 우리 장병들이 이상하고…… 불법성을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작전을 중지하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제 부하로부터, 제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주민이 그 딸한테 ‘반란군 자식들이 꺼져라’라고 하면서 욕을 해서 그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매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들어가서 순직을 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누군가 부대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들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들입니다. 그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그들은 기필코 국가가 부여한 그 현장에 가서 목숨을 다 바쳐 죽을 것이고 그의 자녀와 가족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현장에 투입된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무능한 지휘관을 만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좀 전에 1공수여단장이 정말 애끓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나 안타깝고 화도 나는 게 과거의 5·18 이후에 우리 특전사 장병들이 정말 멍에 아닌 멍에, 굴레를 쓰고 이를 극복하는 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몇몇 사람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굴레를 쓰게 된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차관님, 지금 보면 우리 특전사 장병을 비롯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대다수 장병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라우마에 당분간 시달릴 가능성이 많은데 국방부 차원에서도 병영생활 전담 상담관을 최대한 가동하든지 다른 어떠한 특단의 노력을 해서라도 추스르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특전사령관님, 자리에 서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장선상에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이해 안 되고 화가 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군에 정말 몇 명 안 되는 최정예, 정예 중의 정예 부대인 707특임단을 국회에 투입한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707을 국회로 투입한 것은 장관님의 지시를 받고 투입된 것이라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우리 1여단장이 가슴 아픈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원 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알겠습니다. 1여단장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 우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두 달에 걸쳐 그 이상, 전 여단에 대해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 파병한 내부 동요로 인한 전선지역에서 도발, 후방지역·수도권지역에서의 테러 이것은 우리가 한 시라도 출동해야 된다는 것은 수도 없이 강조했고 1여단장이 얘기했던 대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도 강조했습니다. 그 태세를 지속·유지해 왔었고.

계엄과 관련된 제 상황 인식은, 정확하게 이게 계엄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12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여단장이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제가 틀렸다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원 위원** 드론작전사령관님 일어나 주시지요.

시간 빠 주시고요.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입니다.

○**유용원 위원** 기술적인 것 잘 모르시면 참모가 말씀해도 좋습니다.

우선 여러 차례 우리 여당·야당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NCND 하셨는데, NCND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사실인데 군사적으로 민감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이 아니지만 또 역시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느 쪽입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유용원 위원** 북한이 10월에 평양에서 추락했다는 우리가 날려 보냈다는 무인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뼈라를 뿌린 거 말고. 그런데 그게 보면 우리가 국군의날 행사에서 공개한 소형 정찰드론과 아주 유사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탑재량이 몇백 g에 불과하고 전단통을 달고 평양까지 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그 제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5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을 받아서 출동을 했고 작전한 우리 군인들이야 하급직이든 중급직이든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책임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 또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야 위원님들한테 잠시 산회 후에 상의 한번 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아이도 크고 이러는데 이 반란군이라는 용어가 맞는지는 여야 모두—공식 명칭은 계엄군 같은데—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공수여단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를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산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 ○출석 위원(16인)

강대식 강선영 김민석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부승찬 성일종 안규백 유용원  
임종득 조 국 추미애 한기호 허 영 황 희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기획관리관 김경욱  
법무관리관 홍창식  
군사보좌관 김철진  
대변인 전하규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최춘송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문상호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 하범만

국방부조사본부

본부장 박헌수

민원조사단장 편강철

국방부검찰단

단장 김동혁

국방정신전력원

연구부장 박성훈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1처장 정성우  
2처장 임삼묵  
수사단장 김대우  
비서실장 이창엽  
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신원보안실장 나승민  
국방부방첩부대장 장상주  
육군본부방첩부대장 윤남현  
안보수사실장 이재학  
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과학수사센터장 송제영  
정보보호단장 박태주  
군사보안실장 이종훈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법무실장 윤비나  
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  
정보본부장 원천희  
작전본부장 이승오  
지휘통신부장 이재승  
민군작전부장 허태선  
계엄과장 권영환  
국군심리전단  
단장 양현승  
사이버작전사령부  
사령관 조원희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 김용대  
정작처장 이제승  
육군본부  
참모총장 박안수  
육군사관학교  
교장 소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전)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직무대리 박성제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제3공수여단장 김정근

제9공수여단장 안무성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전)사령관 이진우  
제1경비단장 조성현  
군사경찰단장 김창학